

Vol. 16 | 2021 WINTER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위드 코로나, 갈등과 우려를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 교원수급 정책 마련해야

Class Know-How

교육과정 자율화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수업권 보장 위한 과밀·과대학교 해결방안

Hot EduTech

디지털 전환과 학교교육

Interview & People

“수업 놀이는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놀이예요”
내 교유의 이미지 살려주는 ‘퍼스널컬러’

Teacher Life

선생님이야, 전문 출판이야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1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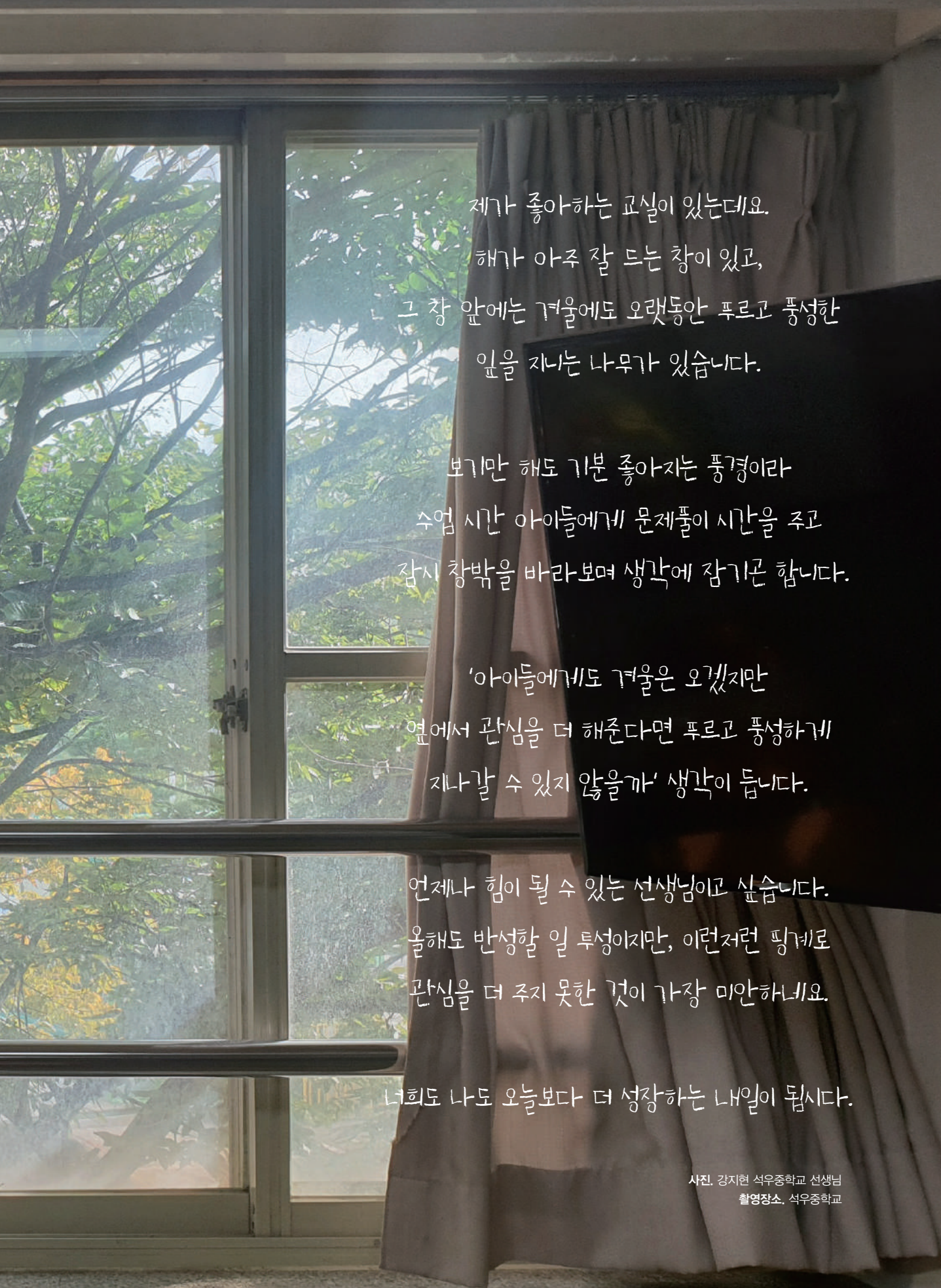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 photograph of a window with a view of green trees. A dark curtain is partially drawn, revealing the window panes. The text is overlaid on the right side of the image.

제가 좋아하는 교실이 있는데요.
해가 아주 잘 드는 창이 있고,
그 창 앞에는 겨울에도 오랫동안 푸르고 풍성한
잎을 지니는 나무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풍경이라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시간을 주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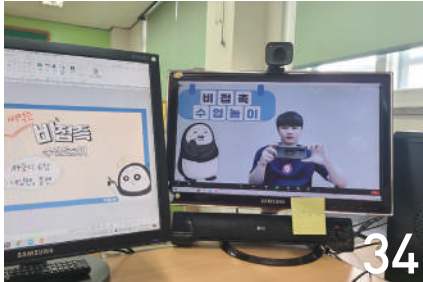
'아이들에게도 겨울은 오겠지만
옆에서 관심을 더 해준다면 푸르고 풍성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힘이 될 수 있는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올해도 반성할 일 투성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관심을 더 주지 못한 것이 가장 미안하네요.

너희도 나도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내일이 됩시다.

CONTENTS

Vol.16 | 2021 WINTER



여는 글

- 06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좋은 말 "그동안 애썼어"
• 서준호

Zoom in Focus

- 08 위드 코로나, 갈등과 우려를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 김진숙
- 12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 교원수급 정책 마련해야
• 정영식

Class Know-How

- 16 교육과정 자율화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 유영식
- 20 수업권 보장 위한 과밀·과대학교 해결 방안
• 유명선
- 22 2030년에도 나는 교사일까? • 김차명
- 26 위드 코로나 교육에 희망을 연주하다
• 변윤섭

Hot EduTech

- 30 디지털 전환과 학교교육
• 박선주

Interview & People

- 34 “수업 놀이는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놀이예요”
• 이종혁
- 38 내 고유의 이미지 살려주는 ‘퍼스널컬러’
• 주혜진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발행일 2021년 12월 18일 통권 제16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vill.com

디자인·인쇄 ㈜태산애드컴

T. 02-2268-2488



- 40 '수준별 커리큘럼부터 메타인지까지'
 - 강지훈
- 42 나와 너의 자기다움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렌즈
 - 김재형

Teacherville News

- 46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8 『스쿨 메타버스』 • 김상균·박기현
- 50 지역 기반 교사 전용 중고마켓, '나누쌤' 출시
- 52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4 신규과정

Teacher Life

- 56 가수의 꿈, 교육 현장에서 꽃 피우는 선생님
 - 조영민
- 60 선생님이야, 전문 춤꾼이야
 - 3호선 교대역

Book

- 64 뉴 이퀄리브리엄/
교사의 서재/
한 번에 쓱쓱!
허쌤의 공부가 좋아지는 공책필기

Cartoon

- 66 학교에 간 서니쌤 • 정은선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좋은 말 "그동안 애썼어"

글. 서준호 광주효동초등학교 선생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위드 코로나로 학교 현장에서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욱 늘어나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사건·사고 없이 격변의 2년을 잘 이겨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 자신에게 칭찬과 선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올해도 수고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애썼어"라고 말해주세요

코로나19 시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그동안 애썼어"라는 말을 건넬 때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요. 어쩌면 숨 쉴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매 순간 변하는 여러 시스템과 일정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보다 자신에게 먼저 "애썼어.", "그리고 그 많은 일을 이겨낸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노력과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내게 먼저 좋은 말을 해주세요.

최선을 다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나를 먼저 챙기라는 말이 이기적으로 생각될 수 있고, 올 한 해를 돌아보



면 잘했던 일들과 함께 내가 실수했거나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 생겼던 여러 속상했던 일이 떠올라 '저 말을 내게 먼저 들려줘도 괜찮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했던 일들로 내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모든 순간 선생님은 정말 고민하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마음을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당시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떠올려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주의는 모든 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한 일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과거의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다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훨씬 결과가 좋지 않았겠느냐면서 자신을 매번 부족하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작은 흠과 결점에도 민감하게 생각해 나를 자격이 부족한 사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없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교사를 끊임없이 완벽한 사람으로 요구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저런 특성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나를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걸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냈던 일들도 참 많지 않나요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작은 실수와 부족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선생님이 해냈던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더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를 뿌듯해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고개 들고 조금 더 당당하게 애썼고, 수고했다는 말을 내게 먼저 해주세요.

나를 위한 '선물 휴식'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런 다음 내게 멋진 선물도 주세요. 지금까지 숨 쉴 여유도 없이 살아온 나에게 몸이 이완될 수 있는 깊은 호흡과 편안한 휴식, 맛있는 음식과 때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서 미소를 만들어주세요. 다가올 방학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물도 좋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짜증내고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가 만날 아이들과 가르치는 일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이라 생각해주세요. 한 번 더, 정말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좋은 말과 선물 받을 자격 충분합니다. **T**



약력 서준호

- 사립교육연구소 치유성장 소장
- 교사 집단상담 및 멘토링 그룹 '성장교실' 운영자
- 유튜브 채널 <티처준호> 운영자
- 저서 『그러니까 고개 들어』, 『서준호 선생님의 토닥토닥』, 『서준호 선생님의 마음 흔들기』, 『서준호 선생님의 교실놀이백과 239』, 『6학년 담임해도 괜찮아!』 등

위드 코로나, 갈등과 우려를 뛰어넘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

글. 김진숙 국가교육회의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코로나19가 촉발한 디지털 전환이 교육 현장에서도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과목을 편리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디지털 전환에는 많은 갈등과 우려가 존재하고 제도·학습환경·교육과정·인식 등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에 대해 김진숙 국가교육회의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 의견을 구해 보았다.

들어가면서

2021년 현재의 교육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교육 혁신의 요구는 과거로의 회귀나 지체를 허용하지 않을 절박함을 담고 있다. 정부·시도교육청·지자체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책도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다만 그동안 컴퓨터교육·교육정보화·e-러닝 등 관련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두된 우려와 전환 과정에서 발

생활 갈등, 새롭게 대두될 쟁점에 대한 성찰은 미흡해 보인다. 현재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한다’ 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 또 고민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을 갈등과 우려를 확인하고, 합의의 중심에 두는 것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지면을 통해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을 도출해 보았다.

디지털 전환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의 힘을 이용해 더 나은 프로세스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이상인, 2020: 16),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경제·정치·문화·사회구조까지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속성을 담고 있는데, 첫째 디지털과 오프라인의 융합(Integration), 둘째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괴적 방식(Disruption), 셋째 어느 한 분야나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총체적(Holistic) 변화가 그것이다(김진숙, 2019). 단순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접근을 독려하는 혁신 사고의 확장이며, 혁신의 결과가 일상적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의 반복·순환 체계로 이해돼야 한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는 기존의 제도·문화·인식 등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약력 김진숙

- 국가교육회의 디지털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파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 수석연구위원
-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 디지털교과서편찬위원 등
- 前 한국교육개발원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연구원
- 前 코로나 범정부 TF 사회분과
- 저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보고서』(공저), 『DIGITAL POWER 2021』(공저)

역사에서 배우는 디지털 전환의 쟁점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디지털 활용은 지난 1987년 국가 차원에서 ‘학교 컴퓨터교육 강화 방안’이 수립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5년마다 교육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2006년도에 마련된 ‘e-러닝 활성화’ 계획은 교육부 내의 독립적인 추진체제를 가지면서 교과교육 시 정보통신기술(ICT) 10% 활용 등 교육과정과의 접목과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교육정보화 사업은 디지털교과서·사이버학습·e-러닝 세계화 등 정부 중심의 단위 과제 추진에 머물면서 추진 동력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2012년에 마련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은 맞춤형 교수학습 체제 구축을 목표로 교육내용·방법·평가·환경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교육

혁신을 꾀하는 계획이었으나, 정책 환경의 변화와 스마트 기기 확대 등으로 인한 우려로 적극 추진보다는 성과 분석 후 추진 등으로 추진 의지가 약해지기도 했다. 디지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후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선언 이후 주요 정부의 정책 배경이나 과제에 ICT 활용 교육·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제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김진숙, 2017).

30여 년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교육의 디지털 활용이 일상화되고, 교육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를 한두 가지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디지털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위주의 전통적 학교교육의 한계, 정책의 지속성 확보와 추진 체제 조성 미흡 등의 거시적 문제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지체 등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내 어느 외딴 지역보다 못한 학교의 인터넷 환경에서 다양한 정보 검색과 분석, 교류, 생산 활동이 나올 리 만무하고 이를 교수학습 전략의 문제, 현장 교사의 전문성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부끄럽다.

이외 이 모든 문제의 연계 고리이자 갈등과 우려로 촉발된 쟁점은 디지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과 증득, 사회성 결여, 사이버 폭력 등의 부정적 인식이 부딪히면서 갈등의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 모든 요인은 서로 연계돼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이 아이들의 학습 발달에 저해가 된다는 인식이 정책의 추진 의지를 약화하기도 했고, 이는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의 지연과 제대로 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때로는 현장의 이해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판단으로 단기적인 정책에 머물러 꾸준함이 요구되는 교원의 전문성 지원과 연구 노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교육에서의 디지털 활용은 적어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쟁점들(제도·추진체제·환경·교육과정·전문성 계발·인식 등) 속에서 지체, 정체, 일부 활용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쟁점은 해결됐는가? 전환의 완성을 위한 제안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원격수업의 경험은 그동안의 쟁점을 일부 풀어나가는 기회가 됐다. 단순히 인프라 구축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변혁에 가까운 정책이 수립되고, 2022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주요 정책에서는 학습자를 둘러싼 삶의 중시와 개인별 맞춤 학습 체제 수립, 이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습득이 미래 핵심 역량으로 간주하면서 교육의 목표나 내

“

교육에서의
디지털 활용은 적어도
코로나19 이전까지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다양한
쟁점들(제도·추진체제·
환경·교육과정·전문성
계발·인식 등) 속에서
지체, 정체, 일부 활용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용으로서도 제안(AI/SW교육)되고, 교수학습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블렌디드) 방식에 관해서도 연구 및 논의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앞선 쟁점들은 모두 해결됐는가? 다뤄야 할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제

도·추진체제·학습환경·교육과정·인식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쟁점은 여전히 도출될 것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인프라 환경의 확대가 가져올 학교의 관리와 책임의 범위, 개인별 맞춤 학습에 필수적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무엇보다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과 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더 중요하게 대두될 민간과 학계와의 연계와 협력의 문제 등 지금과는 다른 쟁점이 도출될 것이다. 이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예측하고 규정해 방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생겨날 새로운 이슈를 풀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책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지역별·상황별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실행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정책의 수립·형성·실행 등 모든 과정에 각 교육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실 가장 중요한 제안 사항은 전환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다. 전환은 하나의 사이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려야 하는 순환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다. **T**

[참고문헌]

- 김진숙·정재영 (2017),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4차산업혁명과 교육 재정 투자 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과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김진숙 (2019), 디지털 전환과 교육체제 융합 방향, 한-OECD국제컨퍼런스 자료집.
 이상인 (202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뉴호라이즌, 고양: 가나출판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양보다 질을 개선하는 교원수급 정책 마련해야

글.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부가 연말까지 새 교원수급 모델 시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로 교원수급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의 중요성이 커졌고,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까? 이에 대해 정영식 전주 교대 교수께 의견을 구했다.

교원수급 정책의 현황

2019년 통계청 장래 인구 특별 추계에 따르면, 2030년의 초등학교 수가 172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7월에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교원수급 계획의 2021~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통계적 인구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2021년 12월까지 교원수급 모델을 개발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 필요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급 계획을 펼쳐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기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신규 교사의 채용 규모도 점차 감소했는데, 지난 5년간 초등교사는 연평균 11.16%(453명) 감소했고, 중등교사는 2.58%(115명) 감소했다.

연평균 초중등교원 선발 현황

(단위: 년, 명,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
초등교사	인원	4,088	4,032	3,916	3,846	3,758	-453
	증감률	-47.3	-1.4	-3.0	-1.8	-2.3	-11.2
중등교사	인원	4,468	4,457	4,448	4,433	4,410	-115
	증감률	-11.6	-0.3	-0.2	-0.3	-0.5	-2.6

* 자료: 연도별 교원 선발 인원

교원수급 정책은 학령기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하고, 초등학교 안심학년제와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실 수업을 혁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자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2021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8명이지만, 교원에는 관리직 교원,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약력 정영식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前 하남초등학교 교사

과 비슷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다. 그동안 교원수급 정책은 경제 논리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따라서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학교 규모와 학교급 별로 수급 기준을 구분한 교원수급 모델이 개발돼야 한다. 즉,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한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초등 대상 교육 정책을 고려해야

학부모 안심학년제·두드림 학교 등 초등학교 대상 교육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수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2020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안심학년제’를 적용해 기초 학력과 안전을 강화했다. 또한 기초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규 수업 시간에 교사나 교원자격증 소지자, 교대생을 동원해 학생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담임과 상담교사가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확대했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는 교실에서, 담임교사 혼자 수업 시간마다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일일이 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두드림 학교에서는 수업 중 보조강사를 활용해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나 문제해결,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강사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일정 수의 보조강사를 정규 교원으로 충원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 있게 지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도입도 고려해야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5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고, 학기 단위의 과목 편성과 방학 중 계절 수업 운영,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 지원, 교과융합적 성격의 창제 영역 도입, 지역 사회 기관에서 이뤄지는 ‘학교 밖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사 충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모든 교육활동에는 교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양을
조정하기보다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



권을 넓히려면 각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더 이상 전공하지 않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운영돼서는 안 된다.

기존 현장 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도 지원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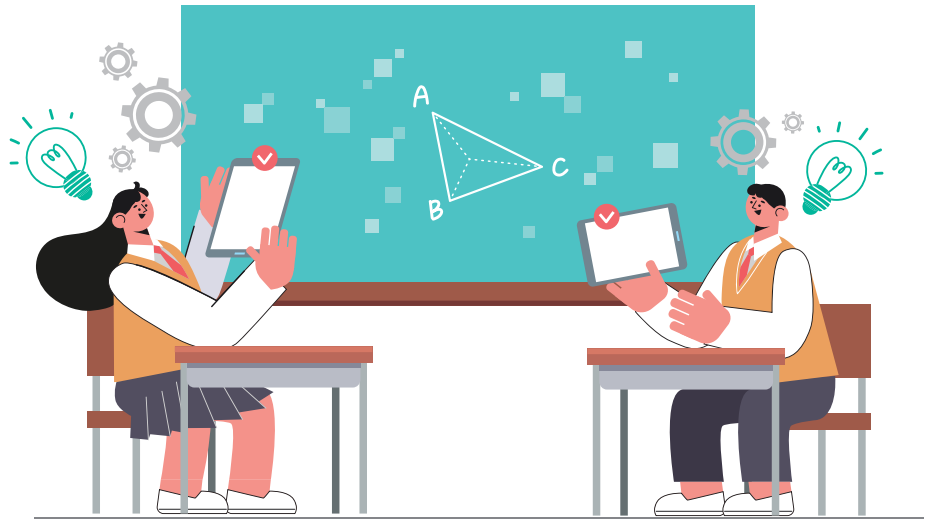
교원 재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원수급 정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수를 꾸준히 감축해왔다. 특히 제2외국어나 정보 관련 교사들은 본인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전공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급변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서 교원수급의 불균형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원 양성 과정뿐만 아니라 기존의 현장 교사를 위한 재교육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전국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융합교육' 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대상자의 수업료 중 4~6학기 동안 150만 원의 범위에서 학기당 등록금의 50%를 지원하였다. 이것은 교사의 재교육 과정을 지원한 대표적인 우수사례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교원수급 정책 필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양을 조정하기보다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신규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교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한된 시수로 운영되는 교원 연수가 아닌, 전공으로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교원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바란다 교육과정 자율화 필요성과 앞으로의 방향

글. 유영식 안산해솔초등학교 선생님



우리의 국가 교육과정은 중앙 통제적이다. 이런 방식은 지역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교육 주체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대가 변한 요즘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특월성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점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스스로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어디까지 와있나

최근 현장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이는 과거에도 논의됐던 이슈지만, 최근의 교육과정 자율화는 조금 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대강화(大綱化)가 우선 전제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분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강화와 분권화가 이

루어졌을 때, 실제 학생들과 맞닿는 교실 교육과정은 지역·학생의 실태에 맞게 지역화·특성화·다양화의 결과물로 연결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우리의 시도교육청 역할을 하는 주 정부에서 실질적 교육과정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에서 대강화된 기준으로 교사의 수업 운영 자율성으로 교육과정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국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이 교실 교육과정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을 자율화할 수 있는 현장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역 교육과정 수준에서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자율과정,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교과목,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학교 자율탐구 과정을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 고시했다. 이 같은 사례는 기존의 교과와 창체로 구분됐던 편제에 교과별 시수 증감 20%를 활용해 ‘학교 자율편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이다. 학교는 이 자율편제라는 공간에 학생 실태에 맞는 ‘다문화·민주시민·생태·교과 융합 프로젝트 등’ 학생 중심의 특색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학교와 현장 교사의 자율적 실천에 의해 논의됐던 교육과정 자율화를 시도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트 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역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이와 같은 학교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 수준 교육과정에서 차차 고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둘째, 교사 차원에서 성취기준 재구조화를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경우 성취기준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철학과 아이들의 니즈를 담은 교사 교육과정을 통해 자율화를 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현장 변화의 움직임이 아직은 시작의 단계이고, 많은 교사가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선언적 수준에서만 논의됐던 자율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 왜 필요한가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핵



약력 유영식

-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연구원 교육과정 분야 자격, 직무연수 강사
- 경기도교육청 평가정책 추진위원
- 교육부 대한민국 수학교사상
- 경기도교육청 수업명인
- 前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핵심요원
- 저서 「수업 잘하는 교사는 루틴이 있다: 교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수업의 모든 것」

심은 대한민국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공통의 기준’이다. 이 기준이 단어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 교과서를 통해 ‘전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은 거주하는 지역과 실태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 모두에게 국가가 공통의 기준으로 맞춤형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이들의 실태, 교육적 요구에 최적화된 단위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래교육 담론을 위해서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의 속도는 최근 교육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이를 운영하기 위한 블렌디드형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이러한 방식들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기 이전 현장에서는 자생적으로 사회변화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AI·메타버스를 활용한 미래형 교육 방법들 모두 시시각각 국가나 지역 교육과정 문서에 의해 기준과 편성 운영 지침으로 담아내 현장의 교사들에게 리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에 교사학 습공동체 혹은 학교 단위 교육과정 준비단계에서 이러한 교육과 연계된 사회변화 움직임을 담아낸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연구하고 발 빠르게 미래교육

체제에 준비할 수 있으려면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자율화, 앞으로의 방향

새롭게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제시가 기대된다. 최근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의 경우 교육과정 자율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공간,
구체적 시수가
확보됐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적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과(군)별 20% 범위에서의 시수 증감 편성·운영 기준을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확대해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증감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관련해 초·중학교 단계에서도 16+1을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1년을 34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던 교과 교육 내용을 32주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2주 분량만큼의 시수를 확보해 학교 선택 활동 또는 선택 과목을 도입한다. 그리고 이처럼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시수 증감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초·중학교 단계에서 16+1을 도입하는 방안에 기반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수가 확보되는 경우 학교에서는 삶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 교육, 다양한 진로 선택활동 등을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여건 및 학생 선호 등에 따라 지역연계 생태수업, 지역과 시민, 환경보존, 경제생활 이해, 디지털 기초 소양 수업, 인공지능과 생활, 역사로 보는 우리 지역 등 다양한 선택 활동 또는 선택 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출처: ‘2022 개정 교육과정 공청회’ 자료 참조).

이는 과거의 국가 수준에서 제시됐던 선언적 자율화를 넘어 지역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실천되고 있는 학교자율화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실질적 자율화의 기준제시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롭게 고시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학교나 교실 단위 교육과정 자율화의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구체화할 것이라 예상된다.

교육과정 자율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운영하게 해줄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숙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교과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수업을 운영한 교사(교과서=교육과정)들에게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한다.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공간, 구체적 시수가 확보됐다는 것은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고, 긴 호흡의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 자신만의 교육과정인 ‘교사 교육과정’을 지닐 수 있게 되며, 이는 교육과정 자율화 시대에 교사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⑦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수업권 보장 위한 과밀·과대학교 해결 방안

글. 유명선 옥길산들초등학교 선생님



재학생 1,700여 명, 약 70학급 초거대학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옥길산들초등학교는 1,700여 명의 재학생이 있는 약 70학급의 초거대학교이다. 편도 2시간의 출퇴근에 심신이 지쳐 좀 더 가까운 경기도 부천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부천에서 제일 학급 수가 많은 학교(경기도에서도 몇 손가락에 드는)였다. 이 학교는 과밀·과대학교의 특이점을 지니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과대학교 현장경험을 살려 그 해소 방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과밀학급, 수업권 보장 어려워… 저학년이 더 심각

학교는 지은 지 몇 년 안 된 택지지구에 둘러싸여 있다. 입학 학생 수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못해 거대학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학급 내 과밀 학생 수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혁신학교 일 경우 교실당 학생 수 25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학급일 경우는 30명 내외의 학생 수로 구성된다. 예외는 있지만,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글쓴이의 경우, 24명의 학생과 함께하고 있다. 이 또한 통합학급일 경우이고, 아닌 경우에는 본교에서는 30여 명의 학생과 수업하고 있다. 이러한 과밀학급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교실 2교사제, 수업 전반에 걸쳐 논란 존재

1학년은 입학 적응 활동에서부터 글쓰기, 기본 연산 활동에서 구체물 조작 활동이 자주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 수 대비 교사의 피드백 시간이 부족하다. 결국 학생 수에 비해 교사 수의 비율적 한계는 물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과 보충 및 협력지도 교사가 선발돼 과밀학급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1교실 2교사제가 개별적인 피드백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은 수업 전반에 존재한다.

수업을 위한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

과대학교의 또 다른 숙제는 수업을 위한 특별활동의 공간 부족이다. 유휴 교실이 없어 특별실도 부족한 과밀학교의 경우에는 활동의 제한이 더 크다. 심지어 체육과 같이 공간적 제약이 큰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공간대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또한 고학년 교과에서는 노작·실습 등의 활동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활동이 영상 시청 등의 대체활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어느 정도 교육 목표의 본질적인 흐름은 따라오고 있으나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자기주도성의 목표와 조작 및 소통이 중요한 초등 교육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교 밖 공간 및 AR·VR·메타버스 활용해보자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마을’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별 인프라를 활용해 찾아오는 체험학습 등을 통해 충분히 한계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오프라인 수업 상황의 대안인 온라인 교육환경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AR·VR·메타버스 등의 등장이 과밀·과대학교에서의 문제였던 공간에서의 제약을 벗어나 현장감과 실재감을 살릴 수 있다.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서 개발한 다양한 온라인기반 교육자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교과 내용의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 간 소통의 어려움,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성해야

학교 안 소통도 과제 중 하나다. 관리자-교사-학생 등 다양한 위치에서 생활하는 만큼 수용해야 할 것이 많지만 결국 학교의 획일화된 관리 체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과밀학급·과대학교인 경우 한 학년당 학급 수도 많아 교사 간 소통 또한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동아리 등도 학년 모임을 벗어나 교내 소통의 장이 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방향을 넓히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과밀·과대학교는 시대에 따라 생겨난 원인도 다르다. 과거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겨난 문제였으나, 최근에는 신도시 택지지구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인 문제이기보다는 특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교의 문제’임은 분명하다. 과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의 의견을 참고해 이 문제를 모두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



약력 유 명 선

- 옥길산들초등학교 교사
- 참샘스쿨 2기 운영진, 에듀박스 소모임 팀장
- 저서 『참샘스쿨 그림교실』(공저), 『초능력 비주얼싱킹 초등한국사』(공저)

학교 밖 사회변화와 교육변화에 관심 가질 때 2030년에도 나는 교사일까?

글. 김차명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미래교육이 시작되는 시점

2000년 초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출발점으로 2009년 9월 경기도 13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정책적으로 혁신 교육을 시작했다면, 공교육 체제에서 미래교육이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교육 2030 학습프레임워크를 제시했으며, 교육부의 경우 '미래교육 체제 추진단'을 2021년 6월에 출범시켜 2023년 6월까지 추진하고,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돼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에 '2030 경기미래교육'을 발표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서울시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2025 미래교육체제'를 발표했습니다. 미래교육의 개념과 시작 지점을 바라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처럼 최근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은 약 2025~2030년 정도입니다.

앞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

그렇다면 앞으로 학교 현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수 급감'입니다. 2020년 연 28만 명이 출생했는데 2021년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연 30만 명 출생으로 기준을 잡고 어렵해보면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약 45만 명 정도이니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8명입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학생 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학교는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부담될 만한 현상입니다. 학생 수 급감과 더불어 큰 문제는 '지역에 따른 학생 부의 빈익빈 현상'입니다.



다.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 지역만 하더라도 초저출생 현상이 무색할 만큼 60~70개 학급 크기의 큰 학교가 수도룩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거나 지방으로 가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는 학교, 전체 10학급이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런 지역에 따른 학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인주의화 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학교 문화가 '각자도생하는 문화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연 등의 연고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고, 단체 중심의 교육운동을 했던 기존 세대는 MZ세대 교사들의 성향을 '개인주의'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를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에서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특정 집단이나 가족·회사 부서·이웃·공동체가 아닌 단 한 명의 사람, 즉 본인만이 존재합니다. 기존 세대가 '지역·이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면 MZ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학교 문화와 달라질 것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뭉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학교장 중심의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기도 힘듭니다. 이 와중에 학교의 역할이 기존의 학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등으로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교육 문제가 사회문제화돼 학교·교실의 역량으로만은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교사는 선망의 직업

잠깐 자존감을 높여볼까요? 다음은 2020년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생 장래 희망과 2019년도 기준 직장인이 꼽은 자녀가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 순위입니다.



약력 김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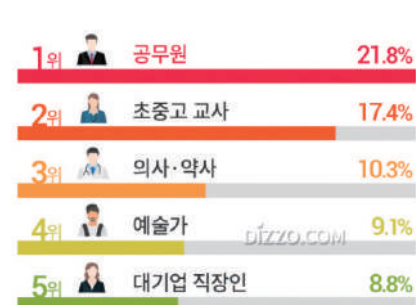
- 챔버스쿨 대표
- (사)경기교육연구소
- 저서 『온오프 연계수업』, 『챔스의 비주얼씹킹 끝판왕』,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2』(공저)

초·중·고등학생 희망직업 상위 10위 현황

(단위: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	운동선수 (8.8)	교사 (8.9)	교사 (6.3)
2	의사 (7.6)	의사 (6.2)	간호사 (4.4)
3	교사 (6.5)	경찰관 (4.5)	생명 자연과 학자 및 연구원 (3.6)
4	크리에이터 (6.3)	군인 (3.5)	군인 (3.4)
5	프로게이머 (4.3)	운동선수 (3.4)	의사 (3.2)

Q. 직장인이 꼽은 자녀가 갖기를 희망하는 직업



2020년 기준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3위, 중·고등학생은 1위로 장래 희망 직업을 교사로 선택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자의 약 40%가 공무원과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의 현실은

2020년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초임교사(경력 3년차 이하) 3,409명과 4년 이상 경력교사 4,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참담합니다. 초임교사의 30%가량이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통해 교사가 됐는데 정작 교사가 된 사람들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갓 임용된 초임교사들의 30%가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한 부분은 눈여겨볼 문제입니다. 초임교사들이 생각한 직업 포기 원인 1위는 교사 인권 문제(31.0%), 2위는 처우 및 보수(20.8%), 3위는 업무 과다 문제(20.4%)를 꼽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적성 문제(11.2%)는 크지 않았습니다.

2030년 나는 교사일까요? 어떤 교사일까요?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2030년에도 교사일까요? 아니 정확히 2030년에는 나는 어떤 교사일까요? 지금 당장 내 모습이 아닌, 내일의 모습도 아닌 지금 우리가 '미래교육'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2030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언제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심입니다. 물론 교사로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시선을 넓혀 학교와 교실 밖의 사회변화, 교육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고교학점제는 왜 하는지, 교육자치와 학교자치는 왜 강조되는지, 앞으로 교사 양성과 승진제도는 어떻게 변할지, 왜 지역 단위 거버넌스와 마을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지,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학교 공간혁신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왜 추진하는지, 교육재정은 어떻게 결정되고 쓰이는지, 무학년제 등 다양한 학교 형태는 왜 나오는지,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인공지능(AI)은 개별화 학습을 도울 수 있을지 등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학교와 교실, 수업 외에도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사로서 당장 내일 수업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시야를 넓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유연하게 대비하는 데 큰 힘이 돼줄 것입니다. ㉠



PC에선 더욱 편하게,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2022 NEW 티처빌

티처빌 홈페이지가 새롭게 달라졌어요



깔끔하고 더 커진 디자인

와이드형 UI/UX로 한 눈에 보기 편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메뉴를 알아보기 쉽게!

필요한 카테고리를 메뉴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모든 학습관리를 모바일로!

과제, 시험, 학습참여, 출석고사까지 모바일로 모두 가능해요.
학습패턴과 학습분야 통계 기능으로 나의 학습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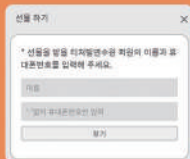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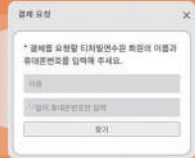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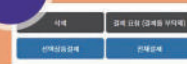
단체/교육청 신청도 모바일로!

단체/교육청 연수신청도 누구나 모바일에서 가능해요.

장바구니에서, 결제를 부탁해!

연수를 장바구니에 담고 담당자에게 결제를 요청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해요.
※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NEW



NEW



이젠 연수도 선물하기!

동료 선생님께 추천하고 싶은 연수를 이름과 번호만으로 선물 할 수 있어요. ※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

새로운 티처빌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
모바일 앱에서 만나보세요

※ 아이폰 기종은 모바일 앱이 불가하며 모바일 웹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상, 전문적학습공동체 위드 코로나 교육에 희망을 연주하다

글. 변윤섭 인천왕길초등학교 선생님

위드 코로나에서도 학교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교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가 있기 때문이다. 전학공은 교사들이 스스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동료들과 함께 학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한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전학공을 고민 중이라면 변윤섭 선생님의 전학공 사례에 주목해 보자.

인천 초등교사와 관리자, 기악합주 전학공 'CPR' 결성

2019년, 인천 초등교사와 관리자가 함께 활동하는 'CPR'이라는 기악합주 전학공을 만들었다. CPR의 팀명은 'Cure Person by Rhythm and harmony'의 약자로서 '음악으로 학교 구성원들(교사·학생·학부모)의 영혼을 구하자'라는 의미다. 매주 월요일 퇴근 후에 학교 음악실에 모여 학생밴드 강사님께서 편곡한 곡을 연습했고, 그해 11월에 서구문화센터에서 첫 공연도 했다. 공연의 뿌듯한 마음을 모아 겨울에는 대학생들이나 갈 법한 MT도 다녀오고 끈끈한 동료애를 다지며 내년에도 왕성히 활동하자고 다짐했다.

코로나19로 대면 모임 무기한 연기, 전학공의 위기

2020년 1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으며 우리 모임에도 비상이 걸렸다. 모임 약기의 구성상 관악기(색소폰·플룻·클라리넷)가 많았고, 침방울이 튀는



약력 변윤섭

- 인천 기악합주 전문적학습공동체 CPR 사무국장
- Eco-STEAM 교사연구회 대표
- 인천형 스마트혁신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회장
- 저서 『당신이 알아야 할 미래교육 이야기』(공저), 『초등 수업을 살리는 레시피』(공저), 『선생님도 몰래 보는 과학대회 비법노트』(공저), 『자구를 살리는 환경놀이』(2022 출간 예정)

활동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면 모임도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연습과 모임을 못 하는 상황은 지속됐다. 지난해에 다 저놓았던 결속력과 모임의 의미가 희미해져만 갔다. 그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일 때 대면 모임을 재개하자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시기, 위기 돌파의 마중물 된 공연 의뢰

그러던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찾아가는 방구석 정책 버스킹 공연'을 의뢰했다. '모임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과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지만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모임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고 공연을 할 것인지' 치열하게 토론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연습할까?', '공연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비대면으로 공연하는 것을 중계할까?' 등 수많은 고민 속에 구성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또 모았다.



2020 제3회 인천시교육청 방구석
정책 버스킹 행사 영상.



지속 가능한 전학공 운영 시스템 구축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모임 운영 방식, 악기 연습 방식, 공연하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논했고 결국 방법을 찾아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대면으로 는 모이지 않고 개별 연습을 원칙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화상 모임을 통해 악기 연습 중에 생긴 질문과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개별 레슨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연 방식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악기 연주 영상을 찍고 그것을 모아 편집해 영상으로 관객들에게 보내는 방식을 채택했다. 처음에는 낯선 방식이라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 챙기고 격려하며 진행을 하다 보니 결국 성공적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 교육청 방구석 정책 버스킹' 공연을 치렀다.



2020년 왕길초등학교 졸업식 상영 영상.



New Normal, 전학공 노하우를 학생 교육으로 연결

첫 번째 공연 때 겪었던 시행착오는 두 번째 공연 영상을 만들 때 소중한 노하우가 됐다. 전학공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학생 교육활동으로 전이하는 데 노력했다. 코로나19로 너무 안쓰러웠던 6학년 학생들의 졸업식에 CPR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학생밴드 뮤직비디오 공연 영상을 만들었다.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고, 교사 전학공의 활동과 학생 교육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되고 뿌듯한 순간이었다.

환경 교육을 위한 환경 전학공도 진행

최근에는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20여 명의 선생님과 ‘Eco-Steam’이라는 환경 전학공을 만들어 운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어떤 환경 교육을 전개하면 좋을지’ 고민하다 혼자서는 어렵고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습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환경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환경 교육을 하면 좋을지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다양한 환경융합프로그램도 고안해냈다.

5가지 미래 역량(Steam)을 고려한 환경융합프로그램

환경 교육은 실생활과 연결되며 다양한 환경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과목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위기감과 문제의식을 내면화하는 환경 감수성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역량, 그 속에 숨겨진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역량, 민주사회 시민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책무성, 버려진 쓰레기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가치 창출 역량이라는 5가지 미래 역량(Steam)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 융합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중 한 사례를 소개한다.

재활용 빔프로젝터 환경융합프로그램

6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배우는 볼록렌즈의 과학적 현상을 택배와 연결해

재활용 빔프로젝터 환경융합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환경수업 모델		교과 핵심 성취 관련 주제
재활용 빔프로젝터 환경융합프로젝트	Eco(환경)	자원 절약	[과학] 볼록렌즈 원리
			[과학] 빛의 원리
	Sensitivity (감수성)	택배 상자 문제의식	[과학] 상이 맺히는 원리
	Technic(기술)	빔프로젝터 만들기	[수학] 원 작도
	Explore(원리)	볼록렌즈의 원리	[수학] 입체도형 작도
	Accountability (사회적 책무성)	자원순환 의식 제고	[실과] 생활용품 만들기
	Making value (가치 창출)	택배 상자 재활용	[실과] 3D 모델링 실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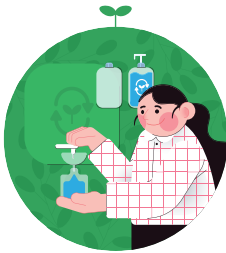


업사이클링 빔프로젝터 완성된 모습.



업사이클링 빔프로젝터 영상 투사 사진.

환경융합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택배 상자의 환경문제를 생각해보고 볼록렌즈를 활용해 빔프로젝터라는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만들며 실과공부와 연결했다. 또 볼록렌즈를 앞뒤로 움직여가며 상이 뒤집히고 작아지는 원리를 탐구하며 과학도 융합했다. 이외에도 Eco-Stream 전학공을 통해 고안한 다양한 환경융합프로그램을 대면·비대면·정규교육 과정·방과 후 동아리 수업 등에 활용해 학생들과 진행했다.



Eco-Stream 전학공이 고안한 환경융합프로그램

- 휴지심과 종이컵 재활용해 스마트폰 스피커 만들기(소리 전달)
- 나무젓가락 재활용해 투석기 만들기(탄성/건축)
- 커피 플라스틱 컵 재활용해 홀로그램 프로젝트 만들기(빛/홀로그램)
- 커피 플라스틱 컵과 모터 활용해 드로잉봇 만들기(전기/움직임/우연/드로잉)
- 빈 병 재활용해 실내용 만들기(전기/빛/조명)
- 양말목 활용해 코로나19 마스크 걸이 및 가방 고리 만들기(생활용품/공예)
- 페트병 윗부분과 신발끈 재활용해 팽이 만들기(전통놀이/과학완구)
- 페트병 아랫부분 재활용한 휴대전화 거치대 만들기(생활용품/발명)
- 페트병과 모터 활용한 선풍기 만들기(전기/회전체/회전운동)

위드 코로나 교육에 희망을 주는 전학공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 등으로 학교의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이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더불어 아이들의 환경 감수성과 실천 지수를 꾸준히 높여나갈 수 있도록 Eco-Stream 전학공을 통해 선생님들과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가 고자 한다. ①

디지털 전환과 학교교육

글. 박선주 메타버스DX팀 팀장/수석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가속이 붙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이 기술과 플랫폼 활용 교육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앞으로 디지털 전환 교육과 학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테크빌교육 메타버스DX팀 박선주 수석은 WHY와 WHAT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라떼는...' 3A와 종이 없는 사무실이 가까운 미래였는데

PC가 막 보급되던 때 상경제열로 진학한 문과생에게 대학교의 터미널 환경에서 진행된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수업과 포트란(FORTRAN), 파스칼(Pascal)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은 외계어에 가까웠다. '중요성'이라는 논리로 반드시 수강해야 했던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이 역설적으로 IT 장이 되게 해준 계기가 됐지만, 아직도 왜 'WHY' 없이 'HOW'만 전달했을까 궁금하다.

취업 준비 중 『시사상식』 책을 통해 '3A'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다. 공장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 사무자동화(OA: Office Automation), 가정자동화(HA: Home Automation)를 통칭하는 용어다. 특히 사무자동화의 미래 모습을 '종이 없는 사무실'로 그리곤 했다. 그러나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종지와 수작업이 존재한다.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예측이 매번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이 실현돼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1995년 상영된 영화 <코드명 J>에서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의 머리 뒤쪽에 320GB 메모리를 이식하는 장면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1.44MB 3.5인치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하던 시절이라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올해가 바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됐던 2021년이다. 노트북에서는 내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보다 빠르고 가벼운 SSD로 대체되고, 2TB도 용량 부족을 걱정하면서 사용하게 됐다. 기술 발전에 의한 사회변화와 그 체감 속도는 배수가 아닌 승수로 빨라지는 것 같다.

디지털 전환, DT와 DX?

디지털 전환(DX: Digital eXchange)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로 사회를 혁신시키는 것’으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블록체인·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방식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이라는 개념이 더욱 상세화·구체화하고 있다. IBM 기업가치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는 2011년 발간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로의 단방향 전환인 DT(Digital Transformation)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교류를 통한 융합적 혁신인 DX(Digital eXchange)가 그것이다. 3A의 키워드가 ‘자동화’였다면 DX의 키워드는 ‘DNA’(Data, Network, AI)이다. 더 정확히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DX를 통해 사회는 더욱 민첩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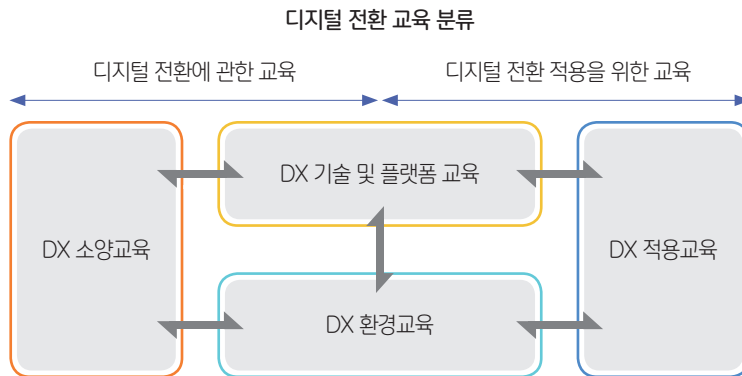
약력 박선주

- 테크빌교육(주) 에듀테크연구소 메타버스DX팀 팀장/수석연구원
-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 박사 수료
-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외래교수(파이선 강의)
- 데이터 관리,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 관리 등 대학기업 출강

디지털 전환 교육과 학교교육

DX 교육은 교육내용과 범위에 따라 DX에 관한 교육과 DX 적용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DX 교육은 정부 지원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교육 형

태로 소양교육, 기술 및 플랫폼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DX 핵심기술 관련 학과를 신설하거나 융복합 전공 트랙을 개설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나,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등이 일부 학교에서 비교과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도다. 이는 DX 적용 수준까지 온전하게 설계된 교육과정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WHY와 WHAT 관점의 디지털 전환 교육해야

코로나19가 촉매제가 돼 디지털 전환에 가속을 불러왔지만, 그 중심에 있는 핵심기술은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성숙도가 높아진, 이미 십수 년 전 개발됐던 기술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은 기술과 플랫폼 활용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디지털 전환 교육의 핵심은 'DX 환경교육'이다. 'DX 환경교육'이란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주어진 환경을 분석해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교육이다. 단순히 HOW 관점의 기술교육이 아닌 WHY와 WHAT 관점의 디지털 전환 교육이며, 이는 디지털 전환 적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교육이다.

며칠 전 정부는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학교육 유연화로 신기술분야 혁신인재 양성, 청년구직자 취·창업 교육 정비, 재직자 및 성인학습자 대상의 전 생애 역량개발 기회 제공, 부처 간 협업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로와 직무를 기반으로 학교급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 수준을 학습할 수 있도록 WHY-WHAT 관점의 DX 환경 및 적용 교육을 강화하고, HOW 관점의 기술교육에 과몰입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3A가 그린 미래의 모습은 종이 없는 사무실이었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자각하지 못하는 편안함'을 갖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테크빌교육(주) 메타버스DX팀은 기술과 환경을 씨줄과 날줄로 삼아 WHY-WHAT-HOW를 균형 있게 다루는 디지털 전환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선생님을 위한 수업 지원 플랫폼 초등수업 한 곳에! 클래스메이커

초등 3/4/5/6학년
56,000여 개의
차시별 동영상

현직교사가 선별하고
SI가 추천해주는
똑똑한 큐레이션

광고 / 저작권
걱정 없이
추천 학습구간만 딱!

“22년 3~4학년 검정교과서 수학 / 사회 / 과학 업데이트 예정!”

클래스메이커, 이럴 때 활용하세요~

- ① 교과서 출판사 과목별 차시에 맞는 수업자료가 필요할 때
- ② 우리반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유튜브 숏폼 영상을 찾을 때
- ③ 현직 선생님이 직접 선별하여 만든 전문가 자료로 믿고 바로 수업할 때
- ④ SI 기반 맞춤형 자료로 다양한 큐레이션 수업을 하고싶을 때

국정 및 다양한 검정출판사,
과목 차시별 큐레이션
자료로 융합형 수업 가능

클래스메이커

선생님이 행복한 수업
클래스메이커와 함께 하세요~

라이브러리

학년 설정하기

3학년 2학기

3. 경쟁 > 01. 승리를 쟁취해요

3. 경쟁 > 02. 공으로 게임을 해요

4. 표현 > 01. 자유롭게 움직여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정보

특수교육

기타

1-2차시 요리조리 승리를 쟁취해요(교과서 68-69쪽)

동영상 12 | 즐겨찾기 | 재가공 | 공유하기

전문가 추천 콘텐츠

인사이드 승려강기

승려강기

승려강기

승려강기

[금성] 출판사자료

지도안(1) - 햄으로 표현하기

지도안(2) - 햄주머니, 오스티나토에 맞추어 노래하기

지도안(1) - 실로폰과 멜로디언으로 연주하기

지도안(2) - 실로폰과 멜로디언으로 '카논' 연주하기

지도안(1) - 노래를 듣고 목소리의 특징 적어 보기

지도안(2) - 친구 목소리 알아맞히기 놀이하기



한글은 세종대왕, 놀이는 이종대왕
**"수업 놀이는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만능놀이예요"**



인터뷰. 이종혁 동두천신천초등학교 선생님

올 한 해 ‘쌤찾자’를 통해 가장 많은 연수를 요청받은 ‘선생님의 선생님’은 누구일까? 바로 교실 놀이 유튜브 <이종대왕>으로도 잘 알려진 이종혁 선생님이다. ‘쌤찾자’는 선생님의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강사와 강의를 추천해주는 티처빌 서비스다. 여기서 이종혁 선생님은 ‘놀이’를 주제로 한 비대면 연수로 많은 동료 교사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생님의 놀이에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많은 선생님이 선택한 놀이 연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zoom을 통해 선생님을 만나보았다.

Q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동두천신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종대왕>이라는 유튜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교실 놀이·수업 놀이 등 분야별로 다양한 놀이를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집현전’이라는 팀을 만들어 대표로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 놀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Q ‘집현전’ 팀의 의미와 하는 일이 궁금해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이종대왕>은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백성들이 쉽게 읽고 따라 쓸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보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맡았던 학년에 대한 자료나 놀이 아이디어를 인디스쿨이나 유튜브 등의 채널에 공유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5학년을 맡았으면 5학년 교과에 관련된 놀이를 공유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전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 ‘집현전’이라는 팀을 꾸리게 됐어요. 현재 열 분의 선생님이 모든 학년 및 교과에 적합한 놀이를 연구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Q '집현전' 팀의 '수업 놀이'란 무엇인가요?

‘놀이’도 수업 놀이·교실 놀이·강당 놀이·운동장 놀이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어요. 이중에서 교실 놀이는 교실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의미하고요. 강당 놀이·운동장 놀이는 해당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놀이예요. 반면 수업 놀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 교과와 관련 지어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놀이예요. 수업을 재구성할 때도 놀이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업 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수업 놀이는 단순 놀이가 아니라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고, 하나의 활동이 국어나 수학 등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만능 놀이예요.

Q 수업 놀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자료를 수업에 적용해봤어요. (자랑 같아 쑥스럽지만) 초임 시절부터 방학 기간이면 교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요. 선생님 가운데 말씀 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말로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전 그런 능력이 부족했어요. 자료가 없으면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있는 아주 옛날 자료부터 다 찾아봤어요. 수업에 적용할 만한 활동을 찾아 아이들에게 매일 한 번 이상씩 적용해봤어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젠 나만의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가령 ‘이런 활동은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다른 활동과 합쳐서 해보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활동은 번거롭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준비물 없이 이렇게 진행해보자’와 같은 노하우가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봤다기보다 조금씩 개선해온 편이에요.

Q 수업 놀이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애들은 원래 10분 이상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연구 결과로 증명된 부분이에요. 하지만 교사는 10분 이상을 강의식으로 수업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중 딴짓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지적하면 수업 분위기가 좋을 수 없어요. 그런데 10분 강의식 수업을 한 뒤 한 5분이라도 잠깐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이 금세 되살아나더라고요. 해서 이런 놀이의 효과에 주목해 지금도 연구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다양한 수업 놀이 개발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약력 이 중혁**

- 동두천신천초등학교 교사
- 교육콘텐츠 유튜브 <이중대왕> 운영자
- 수업 놀이 연구회 '집현전' 대표
- 저서 '수업, 놀이를 제대로 만나다'

Q 놀이에 참여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놀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앞에 나와 역할극을 하는 등 친구들과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런 형태는 기본적으로 부담되잖

아요, 그러면 당연히 참여율이 낮아져요. 그런데 <이중대왕> 유튜브에 업로드된 놀이 콘텐츠를 보면 알겠지만, 누군가가 주목받는 놀이가 아니라 다 함께 참여하는 놀이의 형태예요. 그래서인지 놀이를 진행하며 참여하기 싫어하는 학생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교직 생활이 짧지 않은 편이라 소심한 성향의 아이들을 종종 봤지만, 다 같이 활동하는 그런 유형의 몰입형 활동은 소심한 아이들도 참여를 잘하더라고요.

Q 놀이 중 승부욕에 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경력 교사 시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경험해보니 이기는 팀이나 잘하는 학생만 칭찬하면 승부욕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에서 강조할 부분은 누가 1등하고 꼴등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놀이하다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잘 지켜 본인이 탈락해야 하는 순간에 스스로 탈락하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OO이는 정말 정직하게 잘하고 있어'처럼 칭찬하며 인성을 강조해요. 게임을 이긴 아이는 이겨서 기분이 좋고, 승부욕 부리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면서 참여한 아이들도 선생님이 그런 면을 계속 칭찬해주니까 '나도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해서 경쟁 분위기에 휩쓸려 우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게임의 속성 중의 하나가 승부욕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걸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정직하게 탈락하는 아이에게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게임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상황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Q '뽀뽀네' 강사로도 활동 중인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남 앞에 잘 나서는 성향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연구하고 아이디어 내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해 봤던 좋은 놀이를 동료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2018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 연수 제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부담스러워 거절만 해 왔는데 어느 날 티처빌에서 강사 활동을 먼저 시작한 '열정기백쌤'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하는 어떤 연수가 있는데, 선생님 하실 거죠?'라고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셔서 자연스럽게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동안 거절만 해 왔는데 그렇게 갑자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곤 연수 직전까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정말 감사하게도 후기가 엄청 좋았어요.



1. 수업 놀이 '미션! 수학왕호걸'을 하는 학생들.
2. 수업 놀이 '놀이 카드'.

그때부터 용기를 얻어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 쌤동네 ’의 ‘ 쌤찾자 ’를 통해서도 연수 신청을 꾸준히 받고 있어요.

Q 연수는 주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어른도 아이들처럼 집중력이 15분을 못 넘기잖아요. 그래서 강연식 강의 대신 참여 형태의 강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주로 ‘ 놀이 ’를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과 해봤던 놀이를 선생님들과도 직접 해보는 식이에요. ‘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라는 연수 후기가 참 많아요. 코로나19 상황도 있지만 보통 학교가 경기도 남부에 밀집돼 있는데 제 근무지가 경기도 북부의 동두천이라 대면 수업이 여의치 않았어요. 해서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덕분에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울산·대구 등 전국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비대면 연수 형태로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에요.

Q 여러 채널을 운영 중인데, 채널 활용법 좀 공유해주세요.

현재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데, 각 채널에 담는 콘텐츠가 달라요. 유튜브는 놀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때 교실 속에 적용해보고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운영 중이고요. 주로 수업 놀이는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고 있어요. 수업 놀이는 ‘ 놀이 카드 ’ 같은 학습지가 필요한데 유튜브에는 한글파일이나 PPT 첨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놀이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 블로그를, 수업 속 적용된 새로운 놀이가 궁금할 땐 유튜브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인스타그램도 시작했는데, 소통을 위해 오픈했어요. 주로 웹툰을 게시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Q 앞으로의 계획과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생각보다 수업 놀이라는 분야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놀이를 자투리 시간에 하는 공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해서 놀이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놀이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또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교실 속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퇴임 후에도 놀이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게 꿈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 얼마 하다가 말겠지 ’라는 시선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사실 힘든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고비마다 이겨내면서 놀이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또 여기서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생각이 비슷한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팀을 꾸려 후배를 양성하고 수업 놀이를 전파해 선생님도, 아이들도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나가고 싶어요. ⑦

네이버블로그 <이중대왕>



유튜브 채널 <이중대왕>



"오늘따라 화사해 보이시네요!"

내 고유의 이미지 살려주는 '퍼스널컬러'

글. 주혜진 image HO 디렉터



퍼스널컬러가 무엇인가요

누구나 한 번쯤, 어떤 날에는 “오늘따라 화사해 보인다”라거나 어떤 날에는 “오늘따라 아파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딱히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늘 입던 대로,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 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때가 있는데 바로 이게 퍼스널컬러와 큰 연관이 있다.

퍼스널컬러란 개인의 고유한 신체색과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의미한다. 신체색은 잘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했을 때 더 건강해 보이고 좋은 느낌을 준다. 개인마다 고유한 신체색에는 머리카락 색, 눈동자 색, 피부색, 입술 색, 볼혈 색 이렇게 얼굴을 기준으로 퍼스널컬러를 진단한다. 지금 바로 주변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한번 신체색을 비교해보자. 각기 다른 컬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퍼스널컬러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 선택을 위한 컬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퍼스널컬러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봄 톨톤, 여름 쿨톤 등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퍼스널컬러는 먼저 크게 톨톤, 쿨톤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고유의 신체색에 있는 베이스의 색이다. 신체색이 노르스름한 옐로베이스의 사람들을 톨톤이라 부르고 신체색이 푸르스름한 블루베이스의 사람들을 쿨톤이라고 부른다. 그다음 봄·여름·가을·겨울의 4계절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색을 중심으로 봄&가을은 톨톤, 여름&겨울은 쿨톤으로 분류한다.

퍼스널컬러 진단 후, 어떤 효과가 있나요

퍼스널컬러 진단 후,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이미지 연출이 가능하다. 나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알게 되면 생활 속 컬러 선택이 즐거워지고,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해 보완하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구체적인 컬러 스타일링 팁을 알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염색을 하고 싶다거나 메이크업 색조 제품을 사러 갈 때, 또는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질 좋은 옷을 구매할 때 퍼스널컬러를 기반으로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한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퍼스널컬러에 관한 낭설, '무채색'

평소에 어떤 컬러의 옷을 주로 입는가? 실제로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무채색”이라고 대답한다. 이유는 무난해서. 그렇다면 무채색이라고 하는 화이트나 블랙은 톨톤이나 쿨톤 같은 퍼스널컬러에 영향을 미칠까?

정답은 '아니오'다. 무채색 같은 경우 흰색, 검은색, 회색으로 색상과 채도가 없는 색으로 명도로만 구별한다. 물

체의 표현에서 일어나는 빛의 반사율·흡수율로 정해지는데 반사율이 높을수록 밝아져 흰색으로, 낮을수록 어두워져서 검정으로 보인다. 우리가 그림자에 색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무채색은 오로지 밝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말 그대로 색상이 없는 '무'채색이다. 무채색은 워톤과 쿨톤에 구애받지 않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하면 된다.

퍼스널컬러에 관한 낭설, '핑크와 오렌지'

퍼스널컬러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 중 흔히 찾아보는 방법으로 '핑크가 잘 어울리면 쿨톤, 오렌지가 잘 어울리면 워톤'이라는 것이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워톤에도 핑크가 있고 쿨톤에도 오렌지가 있다. 이 말은 퍼스널컬러와 메이크업이 만나면서 생겨난 말인데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제품들은 옐로베이스와 핑크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워톤에는 연어나 복숭아 같은 컬러의 핑크가 있고 쿨톤에는 형광빛이 도는 푸르스름한 오렌지 컬러가 있다. 모든 컬러에 옐로베이스와 블루베이스의 차이로 워톤과 쿨톤이 결정된다.

퍼스널컬러 적극 활용으로 나만의 이미지 찾아요

퍼스널컬러 진단 후, 4계절 컬러팔레트를 기준으로 스타일링을 바꾸었는데도 뭔가 어색하고 주위에서 이상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전체적인 컬러템을 점검해야 한다. 얼굴 위주로 점검하면 좋은데 한 가지 영역만 바꾼다고 해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의상 컬러도 4계절 톤에 맞게 바꾸고 안경테, 염색의 컬러 또한 얼굴의 변화를 크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메이크업에서도 파운데이션의 컬러 베이스를 톤에 맞게 쓰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의상의 컬러를 선택할 때 팁이 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원래 사고 싶었던 디자인과 컬러의 옷은 고민하지 않고 사지만 보통 쇼핑을 하러 가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에 빠진다. 옷의 디자인을 고르고 나면 컬러를 고민한다. 이때 어떤 컬러가 워톤인지 쿨톤인지 구분이 안 되면 비슷한 무게감의 컬러를 두 가지 놓고 비교를 하면 훨씬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노르스름한 컬러와 푸르스름한 컬러 중에 내 퍼스널컬러에 가까운 컬러를 고르면 된다.

퍼스널컬러를 진단 후 내 컬러팔레트를 알고 나면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만 평생 써야 할 것 같다. 좋아하는 컬러가 얼굴과 덜 어울린다면 그 컬러는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멀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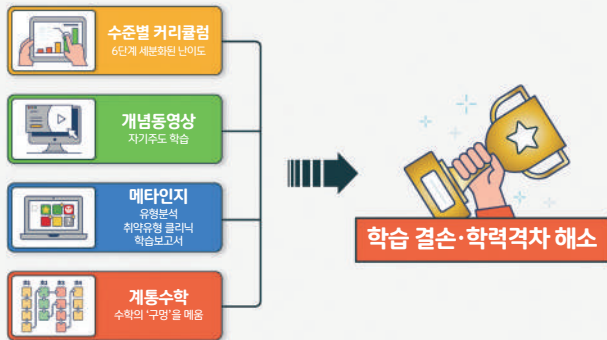
또한 어깨를 기준으로 배꼽까지 V존 안쪽은 잘 어울렸던 퍼스널컬러를 쓰고 바깥쪽은 덜 어울렸던 컬러를 사용해도 좋다. 퍼스널컬러를 진단한다고 해서 컬러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컬러가 너무 많다. 모든 컬러를 다양하고 자유롭게 쓰지만 내 고유의 이미지를 제일 잘 살려주는 컬러가 바로 퍼스널컬러다. ㉠



약력 주혜진

- image HO 수석컨설턴트
- CEO 전문 이미지컨설턴트
- 교육부 중앙교육연구원
고급관리자과정
이미지메이킹 외래 강사
- 유니클로 전국 매장 대상
퍼스널컬러 강의 외 다수

매쓰홀릭 시수학 학습 프로그램



교육현장의 새바람 매쓰홀릭의 AI 기술 '수준별 커리큘럼부터 메타인지까지'

글. 강지훈 매쓰홀릭 대표

늦은 시간까지 열려 있는 환한 상점을 보면 위드 코로나 이후 일상이 점차 회복돼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벌어진 학력 격차를 좁히는 것은 상점의 셔터를 여닫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변화된 교육 현실에 맞는 새로운 학습 플랫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매쓰홀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수학학습 플랫폼 회사로 현재 국내 약 2,200개의 수학 전문 학원에 서비스하고 있다. 매쓰홀릭의 AI 기술을 활용하면 각 학생에 맞춘 수준별 커리큘럼이 가능하고 취약 유형을 분석해 보완할 수 있으며, 개념 및 필수 예제 동영상을 이용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매쓰홀릭은 크롬 기반 브라우저와 앱(app)을 제공해 PC·태블릿·모바일 등 전자기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수준별 커리큘럼과 개념 동영상으로 학력 격차 해소

어린 시절, 게임에 푹 빠져 있던 때를 생각해 보면 각 레벨을 하나씩 깨나 가다 최종 단계까지 클리어했을 때 느꼈던 기쁨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사실 공부란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 수준에 맞는 레벨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어떤 과목이든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학습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수업에 성취감과 재미를 느낄 학생은 많지 않다. 때문에 매쓰홀릭은 최대 6단계의 세분화된 난이도로 수준별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적절한 커리큘럼을 통해 정답률을 높이고 오답에 대한 클리닉 역시 가능하다. 하나씩 맞는 문제가 늘어가고, 모르는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학생의 학습 성취도는 올라가고 잃었던 자신감을 찾는 동시에 공부에 대한 재미까지 얻게 된다.

각 반에는 학습 이해도가 빠른 학생이 있는 반면에 여러 번 설명해줘야 이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해진 수업시간 안에 한 학생을 위해 같은 설명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습득력이 빠른 학생은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 매쓰홀릭은 이 점을 고려해 기초적인 개념이나 그에 맞는 필수 예제 풀이 동영상 약 2만 개를 제공해 자기주도적으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AI 기술로 학습 분석...학생과 교사에게 정확한 데이터 제공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발견·통제하는 정신 작용이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데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개념인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매쓰홀릭의 AI 기술이다. 매쓰홀릭에서 학생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입력하면 이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의 취약 유형 및 단원에 대한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매쓰홀릭의 데이터는 초록·노랑·빨강 등 직관적인 색깔로 나타나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은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고 교사는 반드시 보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 과제를 낼 수 있어 취약 유형 클리닉이 가능하다. 또 매쓰홀릭을 사용하면 AI 분석을 기반으로 각종 학습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그래프·도표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습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학습 결손 극복의 핵심 기 '계통수학&연산대장'

소위 ‘수포자’라는 말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학생들 입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것은 수학의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이전에 공부한 것이 없어도 단기간 집중해 암기하면 성적이 오르는 과목들과 달리 수학은 과거 학습했던 개념과 현재 학습하는 개념의 연계성이 높은 교과다. 따라서 매쓰홀릭은 AI를 활용한 수학 계통 분류를 통해 수학의 ‘구멍’을 메워나간다. 특히 기초학력이 몹시 부족한 상태에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학생에게는 연산대장만 한 것이 없다. 반복적인 단순 계산 학습을 통해 기초부터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쓰홀릭의 연산대장 서비스다.

매쓰홀릭, 테크빌교육과 공교육 대상 AI 수학학습 프로그램 제공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해소 및 개인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인공지능(AI) 활용 수학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매쓰홀릭이 협업했다. 현재 부산지역의 15개 학교가 매쓰홀릭을 정규수업 및 방과후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교육청 비대면 세미나는 10월 19일, 10월 26일, 11월 4일에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매쓰홀릭은 테크빌교육과 협업해 전국 단위 선도교사 모임을 개최하고 AI 활용 수학학습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에게 수업 모델 제안, 기능 교육, 사례 공유 등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에 적합한 UI/UX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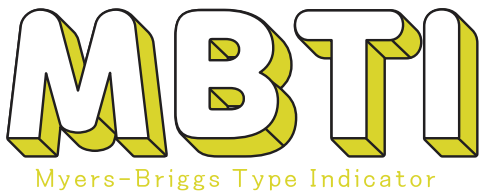
약력 강지훈

• 매쓰홀릭 대표



MBTI,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검사도구 나와 너의 자기다움을 볼 수 있는 신기한 렌즈

글. 김재형 한국MBTI연구소 연구부장



새 학년, 새 학기를 맞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설레고, 분주한가요? 새로움에 대한 불안·걱정·긴장이 앞서나요? 선생님들도 학생들처럼 새 학년, 새 학기를 다양한 마음가짐으로 준비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잠시 새 학년, 새 학기에 대한 바람을 한두 줄의 문장, 혹은 몇 단어로 노트나 메모지에 적어볼까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이번 학기와 학년을 마칠 때까지 노트와 메모를 자주 보면서 메모 속 내용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노력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MBTI, 좋은 성격 변별하는 심리검사아냐

1~2년 사이 정말 많은 관심을 받은 단어 중 하나가 MBTI 아닐까 생각합니다. MBTI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성격과 연관된다고 들어본 것 같고, 외향·내향·인싸·아싸 등의 단어들과도 자주 들어봤을 것 같아요.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는 심리검사 도구입니다. 세상엔 많은 심리검사 도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MBTI는 성격을 파악하는 심리검사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 또는 주변인들의 성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격 좋다', '성격 나쁘다' 할 때의 그 성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MBTI가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을 변별해주는 심리검사 도구는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검사,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해

MBTI를 바라볼 때, 이 지점에서 오해와 편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MBTI는 좋고, 나쁜 성격을 알려주는 도구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유형, 못하는 유형을 구분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검사를 한 피검자가 편향된 생각에 사로잡혀 본인의 유형과 타인의 유형을 편의적으로 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가로부터 MBTI가 무엇을 알아보는 심리검사 도구인지 안내를 받고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I, S-N, T-F, J-P〉의 4가지 대극 지표로 분류

MBTI가 말하는 성격은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호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MBTI는 개인의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다음의 4가지 대극 지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중 어느 곳에 더 편안하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외향형(Extroversion)과 내향형(Introversion)으로 구분하고, 정보를 인식할 때 오감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면 감각형(Sensing), 독창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정보를 수용하면 직관형(Intuition)으로 구분합니다. 또 판단 및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객관적·분석적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사고형(Thinking),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작·지향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감정형(Feeling), 일상생활의 구조화 정도에 따라 체계와 계획, 시간 구조화의 패턴이 편안하면 판단형(Judging), 유연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상황에 적응하면서 삶을 구조화해 나가는 인식형(Perceiving)으로 구분합니다.



약력 김재형

• (주)한국MBTI연구소
연구부장

대극 지표, 반대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대극의 관점을 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형이 논리적이면 대극인 감정형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不)·비(非)를 붙일 것이 아니라 감정형은 정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판단형이 체계적·계획적이면, 대극인 인식형은 무계획적이라는 관점 또한 위험한 관점입니다. 인식형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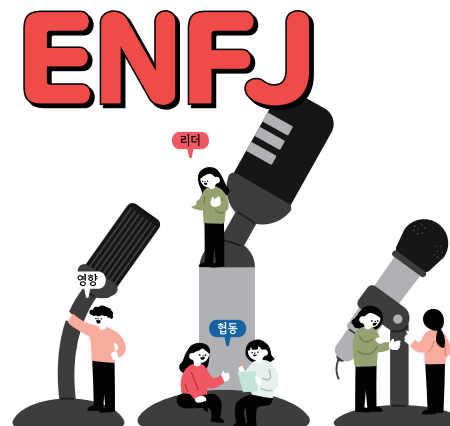
MBTI 활용법, 대인관계에도 많은 도움 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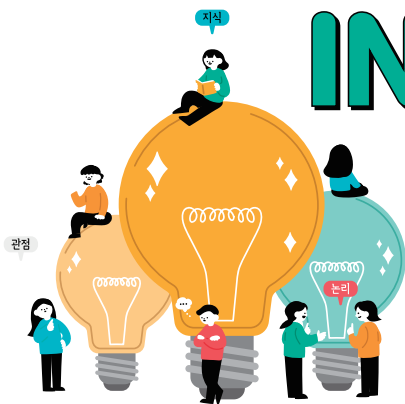
MBTI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특히 2명 이상이 모여 있는 곳, 상황이라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MBTI가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데요, 그러한 관점은 아니고 인간이 서로 관계하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풀어가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MBTI 검사를 통한 성격유형 확인과 전문가로부터의 해석이 동반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MBTI에서 말하는 4가지 대극 선호지표의 개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면, 대인관계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선호가 있듯이 상대방도 선호가 있고, 내가 선호하는 말과 언어가 있듯이 상대방도 그의 선호 언어가 있음을 알게 돼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의 인정, 긍정적인 면 바라볼 수 있어

표현을 좋아하는 외향은 심사숙고하는 내향을 이해하고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조용하고 정적인 내향은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외향의 질문에 짧은 말이나 표정 등으로 조금은 속도감 있게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감각형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직관형의 새로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독창적인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은 직관형은 비약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놓칠 수 있는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잘 다루는 감각형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형은 감정형의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수용의 태도가 대인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허용적인 감정형들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요한 때에 관계로 인한 치우침 없이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사고형의 태도가 업무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적이고 정리 정돈이 편한 판단형은 계획과 일정의 불가피한 변화에도 유연하





INTJ

게 대응하는 인식형의 여유를 배울 수 있고, 즉흥적이면서 적응력이 뛰어난 인식형은 계획과 구조 속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판단형의 안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해야

이와 같은 관점은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이런 관점이면 차라리 MBTI를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가능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극 선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성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실에서도 MBT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을 MBTI 선호지표, 성격유형이라는 틀에 가두거나 일종의 변명으로 MBTI를 활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의 세계가 다양한 성격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공존하는 장이라는 것, 그리고 성격유형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MBTI 활용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MBTI,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렌즈로

내가 나의 성격(MBTI 성격유형)의 특징을 알고, 나답게 자기다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인 가족, 친구들, 동료 교사들, 학생과 학부모의 특징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존중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주변 사람들은 선생님이 자기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 자기답게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와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그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신뢰하려면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신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 자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나는 학생들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전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MBTI라는 심리검사 도구의 렌즈를 통해 학생들의 긍정적인 부분을 읽고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 새 학년과 새 학기! 새로운 교실, 처음 만난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 등 익숙하지 않은 낯선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과 적응이 필요한 내향형·감각형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먼저 다가간다면 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불편하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대감이 가득한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

테크빌교육 티처빌, ‘클래스메이커’ 통해 출판사별 교과 수업자료 제공



테크빌교육 티처빌원격연수원(이하 티처빌)이 수업 지원 플랫폼 ‘클래스메이커’에서 각 출판사 교과서 차시별 연관 수업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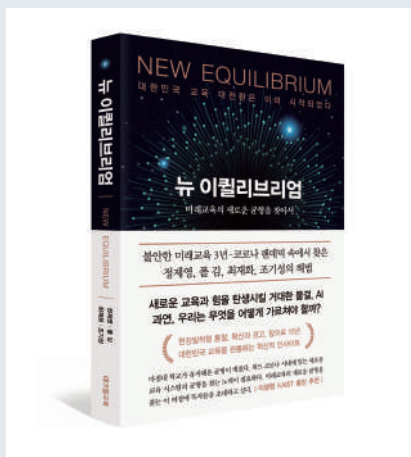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수학·사회·과학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정체제로 단계적 전환된다.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교사가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해 디지털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다. 검정 체제에선 각 출판사별 사이트를 방문해 수업 자료를 확인해야 해 교사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래스메이커는 4만 6,000여개의 유튜브 동영상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과 현직교사가 출판사별 초·중·고 3~6학년 학년·과목·단원·차시별로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추천한다. 2학기 개학에 맞춰 이달 베타서비스를 시작했다. (기사 하략)

김명희 기자

정제영·폴김·최재화·조기성 공저, 미래교육의 새로운 균형 ‘뉴 이퀄리브리엄’



테크빌교육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을 제시하는 교육도서 ‘뉴 이퀄리브리엄’(NEW EQUILIBRIUM)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뉴 이퀄리브리엄’은 코로나19와 함께 찾아 온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책이다. (기사 중략)

책은 △1장 코로나19가 자각시킨 우리 교육의 현실 △2장 기술을 이해하면 AI 융합교육이 보인다 △3장 2025년, 대한민국 교육 혁명이 시작된다.

△4장 AI 시대에도 바뀔 수 없는 궁극의 교육 △5장 AI 시대, 학교와 부모의 역할 총 5장에 걸쳐 구성됐다. (기사 하략)

나기호 기자

뉴스1 (2021. 09. 27)

영유아 성장놀이물 ‘부모공감키즈’ 베타서비스 선택



테크빌교육의 영유아 전문 양육플랫폼 ‘부모공감’은 영유아 성장놀이물 ‘부모공감키즈’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공감키즈는 영상 기반 영유아 성장놀이물로 부모에게 유아 홈스쿨링 놀이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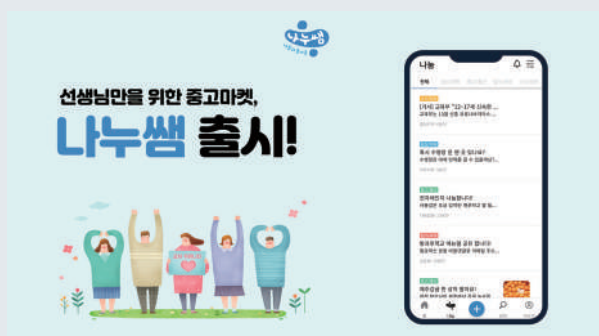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정에서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학습하고 놀이를 하려는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출시됐다.

부모공감키즈의 놀이 서비스에는 영유아 놀이 전문가, 영유아 발달 전문가, 영유아 교육 전문가, 영유아 상담 코칭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배움 기반의 놀이를 함께 연구하고 연령별·발달영역별 성장놀이를 소개·제공하고 있다. (기사 하략)

윤다정 기자

전자신문 (2021. 11. 11)

테크빌교육, 지역 기반 교사 전용 중고마켓 ‘나누쌔’ 출시



테크빌교육(대표 이형세)이 지역 기반 교사 커뮤니티이자 중고마켓 ‘나누쌔’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누쌔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교사 통합 커뮤니티이자 중고마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현직교사로 인증된 회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교사만을 대상으로 해 일상적 정보뿐만 아니라 수업 물품, 수업 노하우 등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전국 교사들과 소통이 가능하며 학교 등록을 통해 같은 학교급과 같은 지역의 교사들끼리만 소통하고 거래할 수

도 있다. 사용자에게 일정한 과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고 업적 시스템도 제공한다. 나누쌔는 나눔 유형에 따라 △일상/대화 △중고/물건 △팁/노하우 △소식/정보 총 4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모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사 하략)

김명희 기자

출간 전 미리보기

메타버스를 학교에 적용하는 교육자들을 위한 안내서
『스쿨 메타버스』

김상균, 박기현 공저



테크빌교육은 2022년 1월 메타버스와 교육을 접목한 책 『스쿨 메타버스』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 대표 메타버스 전문가 김상균 교수와 박기현 테크빌교육 에듀테크연구소 대표가 학생들이 열광하는 메타버스의 교육적 가능성, 새로운 교실 공간과 교수학습 환경설계 가이드, 메타버스 에듀테크의 현재와 미래 등에 대해 전문적 통찰과 이론, 사례 등을 상세히 제시한다. 출간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스쿨 메타버스』의 한 부분을 지금 만나보자.

• 왜 교육에도 메타버스인가 •

인간의 세 가지 욕망과 메타버스

인간의 행동을 인지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교육은 인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인간의 상호작용이란 나를 중심으로 두고 세상과 타인을 대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의 소통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원하는 상호작용이란 어떤 것일까?

나, 세상, 타인, 상호작용이라는 요소들의 이면에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상호작용의 이면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의 욕망이 있고, 세상을 대할 때는 탐험의 욕망이 있으며, 제 뜻을 펼쳐 세상이나 타인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성취에 대한 욕망이 있다. 타인을 제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도 존재하는데 이는 소위 길러집단, 괴짜집단으로 불리는 1% 정도의 소수가 보이는 욕망으로, 나머지 세 가지가 인간이 살아가는 중에 품는 욕망 대부분을 설명한다.

이 세 가지 욕망이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 과연 우리 교육에서 이 세 가지 욕망은 잘 해소되고 있을까? 충분한 소통과 탐험과 성취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 교육은 아직도 학생과 교사 간 소통, 학생과 학생 간 소통에 인색한 편이고 학생들의 지적 탐험은 이미 열려져 있는 지식을 그 제시된 순서대로 탐색하도록 하는 데 그칠 뿐 학습자가 스스로 종횡하며 학습할 기회는 희박하다. 성취의 기회도 자연히 적다.

약 10년 전쯤에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라는 개념이 알려졌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을 보이며 도입하기 시작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욕망의 결핍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 기법이나 게임적 사고 등 게임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게이미피케이션이란 용어는 교육에서 기존의 학습과정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게임적 요소를 더하는 접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는 GBL(Game Based Learning)과 구분된다.

메타버스,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과 VR

게이미피케이션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도구 혹은 장소가 메타버스에 있다. 그리고 소통·탐험·성취라는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강력한 힘을 지금 메타버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수업에 대한 관심을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교사라면 자신이 초·중·고, 대학, 사기업 어디에 몸담고 있든 메타버스에 주목해볼 직하다.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는 어떻게 다를까? 인지과학적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관한 인지과학 지식을 게임에 대해 풀어낸 결과물이 게이미피케이션인 반면 온라인 세상에 풀어낸 결과물이자 결정체가 메타버스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곤 한다. 답은 “아니오”다. 게이미피케이션이 온라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것처럼 메타버스는 온라인 세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현실세계와 기타 세계가 연결된 상위 세계, 즉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 그 자체다.

각자의 맥락이 있겠지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좁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들은 메타버스가 곧 VR 기반 가상세계를 가리키는 것처럼 아주 한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VR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VR은 가상현실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현실세계의 연계와 소통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를 아우른다. 가상현실 속 아바타가 친구들, 동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면서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학습이나 업무를 가상공간에서 수행하고 현실세계에서 그와 연관된 피드백이나 결과가 이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상위세계,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콘텐츠가 대부분이 양방향인 반면 VR 콘텐츠는 단방향인 것이 많다.

메타버스를 최대한 넓은 의미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오프라인에도 메타버스가 있다. 상황극처럼 실제 현실이 아닌 특별한 세계관 시나리오의 일부로 참여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여기에도 현실을 초월하는 별도의 세계가 구현된다. 소박하더라도 이 또한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에 해당한다.

다시 게이미피케이션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 게이미피케이션은 재미라는 모티베이션 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메타버스의 모티베이션 요인은 다양하다. 재미, 경제적 이익, 사회적 의미 등 다양한 사회적·개인적 동인이 모두 메타버스에서도 모티베이션 요인이 된다.

즉 메타버스의 일부에 게이미피케이션이 요소로서 도입돼 있다고 보는 게 옳다. 다만 실제로 대부분의 메타버스 상황에 게이미피케이션이 필연적으로 도입돼 있을 뿐이다.

보다 재미있는 학습, 좀 더 재미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는 아주 오래된 확실한 수요다. 메타버스는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해 즐겁게 교육하고자 하는 오랜 시도의 색다른 터전이자 새로운 방향성이라 볼 수 있다. ⑦



지역 기반 교사 전용 중고마켓, '나누샘' 출시

글. 김영현 에듀커머스사업부 책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하는 이유'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은 대가를 받거나 무료로 전달하는 기부 활동에서 오는 뿌듯함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중고거래의 성장 동력인 셈이다. 결국 '나누다는 것'은 나의 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더하는 일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즐거움을 곁히는 일이 아닐까.

모든 거래는 신뢰가 기본

중고시장이 커지는 만큼 해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보다 중고거래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사라졌지만,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안전 결제, 거점거래, AI 모니터링 기술 도입 등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누샘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교사'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재직증명서 등 서류 확인을 통해 현직교사로 인증

된 회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뢰는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고/물건

티처벨에서 구입한 교구 5세트 나눔합니다!

일상/대화

교사는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네요...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소식/정보

교육 박람회 2022.05.17(수) ~ 19(금) 서울 코엑스

팁/노하우

전학생을 맞이하는 개학 팁 알려드릴게요! ^^



일상을 나누는 중고마켓

나누샘은 개인 물건이나 학교 교구 등의 중고 물건을 나눌 수 있지만, 교사로서 지닌 특수한 고민이나 수업 물품, 수업 노하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 가벼운 대화를 하거나 소식을 나누는 사소한 나눔을 지향한다. 이러한 나눔의 유형에 따라 일상/대화, 중고/물건, 팁/노하우, 소식/정보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돼 있다. 이는 교사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학교급별 나눔, 지역별 나눔

나누샘은 초·중·고등학교 교사 모두가 참여하는 교사 통합 커뮤니티이자 중고마켓이다. 따라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소통하는 것이 기본이다. 단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소속 학교에 따라 학교급과 지역이 자동으로 설정되는데, 같은 학교급 교사들끼리만 거래하거나 같은 지역 교사들끼리만 거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OO초등학교 교사라면 초등학교 교사 혹은 서울지역의 교사들끼리만 소통할 수 있다.

중고마켓 특화 기능 구현

앞으로 채팅 기능, 가격 정보 제공 등 중고거래 기능을 추가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또 교사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앱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모두 내려받을 수 있다. ①

2022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시작일	연수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발급
1기	4학점	12월 29일	02월 15일	02월 12일	02월 18일
	3학점	12월 15일	01월 18일		01월 19일
	3학점	12월 29일	02월 03일		02월 04일
	3학점	01월 05일	02월 08일		02월 09일
	3학점	01월 19일	02월 22일		02월 23일
	2학점	12월 15일	01월 11일		01월 12일
	2학점	12월 29일	01월 25일		01월 26일
	2학점	01월 05일	02월 03일		02월 04일
	2학점	01월 19일	02월 15일		02월 16일
	1학점	12월 15일	01월 04일		01월 05일
	1학점	12월 29일	01월 18일		01월 19일
	1학점	01월 05일	01월 25일		01월 26일
	1학점	01월 19일	02월 08일		02월 09일
2기	3학점	02월 03일	03월 08일		03월 10일
	3학점	02월 16일	03월 22일		03월 23일
	3학점	03월 02일	04월 05일		04월 06일
	3학점	03월 16일	04월 19일		04월 20일
	2학점	02월 03일	02월 22일		02월 23일
	2학점	02월 16일	03월 15일		03월 16일
	2학점	03월 02일	03월 29일		03월 30일
	2학점	03월 16일	04월 12일		04월 13일
	1학점	02월 03일	02월 22일		02월 23일
	1학점	02월 16일	03월 08일		03월 09일
	1학점	03월 02일	03월 22일		03월 23일
	1학점	03월 16일	04월 05일		04월 06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NEW

선생님만을 위한 중고마켓

나누샘 출시 기념 이벤트

나눔을 하신 1,000분께 커피를 나눠드려요!

나누샘은 지역 기반 교사 전용 중고마켓입니다.
개인 물품은 물론 학교 교구 등의 중고 물건부터
선생님이 지닌 특수한 고민과 수업 노하우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기 간

증정 소진 시까지

나눔상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참여방법

1. 나누샘 앱을 다운로드 한다.
2. 회원가입 후 교사인증을 완료한다.
3. 나눔글을 등록한다.

* 참여기간 동안 글 1회 작성 시 이벤트 자동 참여



혹시,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 2021년 티처빌 신규과정 ·

나태주와 함께 시에 빠지다

1학점

꽃꽃 시인

나태주와 함께하는 시간의 심포

나태주, 최영건



강의 개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짧은 서정시는 나태주 시인이 쓴 <꽃꽃 1>이다. 본 과정은 대한민국의 서정시인 나태주의 시를 문학적으로 풀어내 시와 시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감상하면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읽어주는 시에서는 시 속에 함축된 의미를 알아가며 자아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은 독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태주 시인의 시를 교과에 적용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시를 통해 시인에게 직접 듣는 시를 쓰는 법, 시는 무엇인가 등의 시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볼 수 있다.

강의 특징

- 시 감상을 통해 교사의 독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
- 작품에 대한 감상을 자신의 삶과 관련해 내면화
- 철학적 메시지를 통해 자아 성찰의 기회 제공



퍼스널컬러! 제대로 보고 제대로 연출하자!

1학점

컬러 선택의 기준 퍼스널컬러

주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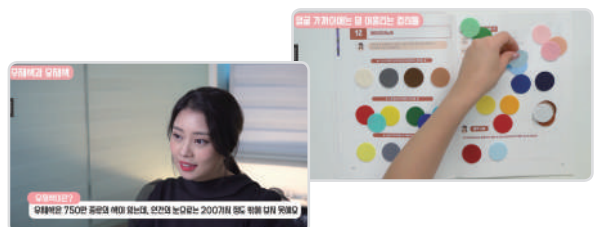


강의 개요

교육전문가인 교사는 학생·학부모·동료교사 등 다양한 사람을 마주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의 이미지는 관계에서 오랜 시간 지속된다. 때문에 교사가 이미지 연출에 대해 고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때 퍼스널컬러를 활용하면 세련된 패션, 헤어&메이크업으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 본 과정은 퍼스널컬러를 기반으로 패션, 헤어&메이크업에 도움을 주는 컬러를 선택·적용해 교사의 유연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웃차림, 의복관리, 소비생활’에서 퍼스널컬러 진단 기법을 활용해 흥미와 유익함을 주는 교육을 할 수 있고 미용색채학과 같은 미술교과목에도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뷰티디자이너와 퍼스널컬러 컨설턴트에 대한 진로탐색 교육도 경험할 수 있다.

강의 특징

- 퍼스널컬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가 컬러 진단법 제시
- 퍼스널컬러의 원리와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퍼스널컬러를 기반으로 패션&메이크업에 도움을 주는 컬러 제시



(주)한국MBTI연구소와 함께하는 MBTI의 정석!

1학점

MBTI,
너와 나를
바라보다

김재형, 전미선



강의 특징

- 원격연수원 최초 MBTI 심리 검사 도구를 다룬 직무 연수
- (주)한국MBTI연구소의 공신력 있는 강의로 MBTI 성격 유형의 올바른 정보 전달
- 친구 관계, 진로 고민, 교사 간 관계 상담에 MBTI를 활용하는 팁 공유

강의 개요

티처빌이 원격연수원 최초로 MBTI 과정을 도입했다. MBTI는 심리학자 융의 성격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Myers와 Briggs 모녀가 개발한 심리 검사 도구다. 최근 MBTI가 주목받으며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티처빌 MBTI 연수의 차별 점은 무엇일까? 바로 공신력이다. 미국 MBTI 연구소로부터 공식적인 라이선스를 확보한 (주)한국MBTI연구소의 연구부장과 선임 연구원이 올바른 MBTI의 이해를 돕는다. 또 티처빌 MBTI 연수는 활용도가 높다. 공인된 내용을 다뤄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본 연수는 MBTI로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제안하고, 유형별로 친구 관계, 진로 고민, 학습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MBTI의 올바른 이해와 실제 활용법을 담은 티처빌 연수로 아이들의 마음에 가까워지면 어떨까?

재미와 의미를 모두 잡은
'안전 교육 종합선물세트'

2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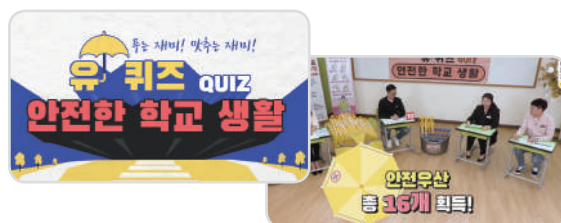
푸는 재미! 맞추는 재미!
"유 퀴즈 안전한
학교생활"송성근
이나연, 엄주하
김미숙, 이재현

강의 특징

- 인기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의 콘셉트를 차용해 퀴즈를 맞히면 아동센터에 기부
- 변호사·소방관·중독 전문 보건 교사 등 안전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6개 영역을 반영한 최신 사례 추가

강의 개요

퀴즈를 풀고, 맞춘 사람에게 상금을 제공하는 tvN의 인기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의 콘셉트를 원격 연수에서 만난다. 본 연수는 안전 교육 관련 퀴즈를 맞히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안전 우산'을 쌓고, 확보한 우산을 실로암 아동복지센터에 기부한다.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원격연수를 인기 프로그램의 형식을 빌려 재미있게 연출한 점이 이 연수의 최고 장점이다. 본 연수는 재미도 있지만, 의미도 크다. 안전 교육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았다.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6개 영역의 최신 사례를 반영했다.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전문 변호사, 폭력 및 예방 중독 전문 보건교사, 학교 안전사고 전문 보건교사, 안전예방교육 소속 현직 119구급대원과 같은 안전 교육 전문가들이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안전지도 시 꼭 필요한 내용을 구성했다.



가수의 꿈, 교육 현장에서 꽃 피우는 선생님

BTS는 세계를, GTS054는 대한민국 학생을 위로

글. 조영민 구미고등학교 선생님



가수가 꿈이었던 한 소년은 이제 모교에서 물리 선생님이 됐다. 하지만 노래로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울림이 좋아 여전히 노래를 부른다. 때론 교육에 노래를 적용하기도 하고 <전국노래자랑>이나 <히든싱어>와 같은 노래 프로그램에 도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북교육청에서 진행한 'GTS054'(비대면 교사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해 최종 4인에도 선정됐다.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따뜻한 취지와 함께 선생님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이 화제가 돼 MBC 뉴스에도 소개됐다. 조영민 선생님의 '멈출 수 없었던 노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자.

가수가 꿈이었던 유년 시절...지금은 물리 교사

어린시절 누군가가 내게 꿈을 물으면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하곤 했다. TV에 나오는 가수가 돼 노래가 전하는 울림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엄청난 뮤지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노래에 대한 자신감은 점점 사라졌고, 나의 꿈은 공연장이라는 큰 무대에서 교실이라는 작은 공간으로 바뀌게 됐다. 현재는 노래를 취미로 하는 열정 물리 교사가 됐지만, 아직도 노래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대로다. 지금도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내 참가해 식지 않은 열정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국노래자랑> 교사편에 나가기

도 했고, 〈히든싱어〉 임재범편 오디션을 치르기도 했다. 〈히든싱어〉는 아쉽게 최종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로 인해 ‘구미고등학교 임재범’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노래와 교육이 만나다, 'M.S.G 활동'

모교인 구미고등학교에 과학 교사로 발령이 나고 지난해에는 과학부장의 직책을 맡게 됐다. 구미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이다 보니 다양한 과학 활동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고,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로 찾아왔다. 음악을 좋아

하지 않는 학생은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로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교육과 노래를 접목해 M.S.G(Music of Science, Geek!)라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봤다. 전문 뮤지션을 섭외해 학교 학생들과 연계해주고, 며칠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과학송’을 제작했다. 기존 과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던 과학송에서 탈피해 멀리서 들으면 사랑, 우정 노래 같지만 가사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과학적 내용이 되는 재미있는 노래를 만들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을 위해 과학적 해석이 담긴 해례본까지 넣어 만든 이 앨범은 멜론(melon)과 같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기도 했다. 뮤직 비디오까지 제작해 노래를 만든 학생은 물론 노래를 듣는 대중의 눈과 귀도 즐겁게 만들었다. 가수의 꿈에서 시작한 열정이 교육에서 꽃을 피운 재미있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M.S.G 구미고등학교 학생들.



약력 조영민

- 구미고등학교 교사
- 유튜브채널 〈조쌤과 함께하는 물리교실〉 운영
- 前 인동고등학교 교사



[M.S.G-구미고 나르샤X비상청소년 가사]

친구야 나와 함께 달려가자
너를 둘러싼 우울한 기운 떨쳐내고
조금 서툴거나 방황할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
상상했던 이상으로 여행을 떠나자
알 수 없는 너에게 다다를 때

(가사 중략)

전류가 되고 싶어도 정전기밖에 되지 못해
방전돼가는 나의 마음 하지만 난 기다려 내일
훗날 맞이할 영광의 연속
내일을 향해 달려가 계속
과감히 세상을 향해 직진
(이하 생략)

BTS 말고 'GTS054' 멤버가 되다

M.S.G 활동은 너무나도 뜻깊고 즐거웠지만, 음원 제작에 직접 참여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선생님이 노래하다!'라는 문구가 적힌 GTS054 멤버 모집 공문을 보게 됐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에게 교사의 노래로 단비 같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감동했다.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처럼 심장도 두근댔다. 고민 없이 데모곡을 녹음했고 1차 오디션에 합격했다. 8명의 선생님이 1차를 통과했고, 녹음실에서 각자의 노래를 녹음하는 기회를 얻었다.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서서 가수가 된 것처럼 녹음해본 경험은 다시 돌이켜봐도 신기하고 앞으로도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가수가 되겠다던 유년시절의 꿈을 잠시나마 이룬 것 같아 행복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여러 차례의 학생투표를 통해 최종 4인을 선발했다. 나는 운 좋게도 최종 4인이 됐다. 지금까지 도전한 오디션 중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처음이었다. 학생들을 위한 진심을 담아 쟁쟁한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고, 이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모양이다.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에 수업을 들어가지 않던 반의 학생들도 나를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줘 마음 한편이 따뜻하고 뭉클했다. 이 소식은 MBC 뉴스로도 방송까지 났다. 덕분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학창시절 친구와도 연락이 닿았다. GTS054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많은 경험을 선물했다.



GTS054란? “경북에 있는 가수가 될 선생님!”

G: Gyeongsangbukdo
T: Teacher
S: Singer
054: 경북의 지역번호

학생들과 축제에서 노래하는 평범한 일상을 기다리며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고 세상의 많은 활동이 위축된 것 같다. 빨리 코로나19가 없던 세상으로 돌아가 활동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을 영위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려 노력 중이지만 코로나19 이전만큼 왓지떨어진 않아 너무나도 아쉽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학생들과 함께 학교 축제에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GTS054 본선2편



부모공감키즈는 티처빌연수원의 패밀리 사이트입니다.

정 식 그 랜 드 오픈

영유아 성장놀이물 부모공감키즈

코로나와 추운 날씨로 바깥활동이 막막한 올겨울
자녀와의 놀이가 걱정이신가요?



부모공감키즈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우리 아이 성장발달 맞춤 놀이를 통해 놀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드립니다.



아이와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성장 발달 맞춤 놀이교구를 통해

아이의 창의력 주도성 사고력 자신감 두뇌 발달 등 전인적인 성장이 향상됩니다.



Let's play time!! 놀이에 가치를 더하다, 부모공감키즈!

www.bumonkids.com



부모공감키즈 바로 가기

선생님이야, 전문 춤꾼이야

교사와 교대생들의 스트리트 댄스 크루 '3호선 교대역'

글. 3호선 교대역 (김두현 서울중평초등학교 선생님)



'3호선 교대역' 단체 샷. 앞줄 왼쪽부터 이윤형, 권윤진, 임동현, 정재혁, 이동현, 민수인, 정일두, 원백희, 배경준, 이주영.

요즘 스우파(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로 K-댄스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교사와 교대생들의 댄스 크루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름은 '3호선 교대역'. SNS를 통해 접한 3호선 교대역의 댄스 영상은 '정말 이분들이 선생님이 맞나' 의문이 들 정도로 힙했다. 교대생과 교사가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3호선 교대역'을 소개한다.

'춤을 춤, 줄여서 춤춤'

'춤'은 명사와 동명사의 형태가 같은 신기한 단어다. 그래서일까? 내게 춤은 여전히 신비롭다. 누군가는 춤을 스포츠라고도 부르고, 또 누군가는 표현예술이라고도 부른다. 글썄, 춤에 대한 정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에게 갖는 의미 하나는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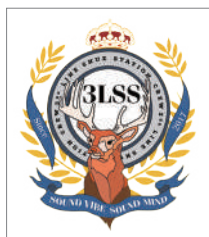
'춤출 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퇴근 시간이다. '엄근진'(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선생님 스위치는 잠시 OFF, 대신 흥부자 스위치를 슬며시 ON 해본다.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 아침이면 어김없이 음악에 맞춰 춤 연습을 한다. 거울 속 자신을 수도 없이 비춰 보고, 가다듬고, 고쳐야 하는 육체적 고행. 어찌 보면 힘들 법한데 이러한 고생을 즐겁게 자처한다. 왜지는 모르겠다. 그냥 춤추는 것이 즐겁다. '동작 좀 틀리고 해매면 어때! 뭐 그리 대수야!'라며 자신을 기분 좋게 세뇌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는 춤은 정말로 즐겁다. 흥겨움은 함께하면 배가 된다.

대학 입학 후 시작한 댄스동아리

춤을 처음 접한 건 대학교 입학 후이다. 학창 시절 방구석 댄서 시절을 지나 대학교 신입생 OT 때 댄스동아리 선배들의 무대를 처음으로 보았다. '힘 있는 동작, 일사불란한 군무! 그리고 떠나갈 듯한 관객들의 함성까지!' 몸에 전율이 흘렀다. '나도 받고 싶다. 저 환호!' '그다음 설명은 이하생략. 단숨에 동아리 가입원서를 쓰고 대학교 댄스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춤에 대한 사랑은 대학생활 내내 지속됐다. 몇 번의 무대와 축제를 거치며 춤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무대 실수와 시행착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춤을 더 잘 추고 싶다는 욕심과 함께 춤추는 즐거움도 늘어났다. 대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는, 춤을 더 추고 싶는데 졸업해야 한다는 사실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약력 3호선 교대역

- 2017년 크루 결성
- 2017~2019년 전국 교대생·교사들을 위한 댄스파티(애프터스쿨파티 이하 ASP) 시즌 1~3 개최
- 2018년 LET ME PLAY 파티 게스트 무대
- 2019년 ALL NIGHT LONG 파티 게스트 무대
- 2020년 경기도교육청 달지X래원 WASH 댄스 챌린지 안무 창작
- 2021년 서울시교육청 교원예술사업 '예술락낙락knock' 프로젝트 댄스부문 참여
- 자체 프로듀싱 30곡 믹스테이프 제작 및 뮤직비디오 발표
- 현직교사와 교대생으로 이루어진 서울경기 지역 스트리트 댄스 크루
- 춤음악영상디자인·패션아트워크 등 전방위적 창작활동
- 전국 교대생·교사들을 위한 댄스파티(ASP) 호스트

찾아온 졸업, 댄스 크루 '3호선 교대역' 결성

졸업해야 했다. 친하게 지냈던 졸업한 동아리 선배들은 한때의 추억으로 춤과 무대를 기억했다. 가끔 꺼내 보는 졸업앨범처럼. 특히 선생님에게 춤은 수명이 짧았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하진 않았다. 추억을 곱씹기보다는 추억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 무렵 생각했다. '학교와 동아리는 졸업할 수 있지만 춤에는 졸업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돼서도 오랫동안 계속 춤추고 싶다고.' 해를 거듭한 고민 끝에 2017년 뜻맞는 동아리 동기·후배들과 함께 크루를 결성했다. 팀명은 '3호선 교대역'(모교가 3호선 교대역 근처에 있었고, 연습실 위치도 그곳에 있었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그리고 그해 가을, SOULTOWER NIGHT라는 외부 스트리트 퍼포먼스 대회에 초등교사 스트리트 댄스 크루 '3호선 교대역'이란 이름으로 참가했다.

'교대생과 교사가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만들자'

'3호선 교대역' 크루의 결성으로 우리의 춤에 대한 갈증은 해소됐으나 우리끼



리만 추는 춤은 심심했다. 같이 추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우리처럼 춤추고 싶은 교사들이 또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물음은 춤추고 싶은 다른 교대생·교사들을 위해서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실질적인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Slogan이 탄생했다. 개인의 고민이 모여 하나의 움직임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교대생과 교사를 위한 댄스파티 개최

2017년 겨울, 전국 교대생·교사들을 위한 댄스파티인 애프터스쿨파티(AFTER SCHOOL PARTY, 이하 ASP) 시즌 1을 개최하기로 했다. 1년 내내 아이들 노는 것만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1년에 딱 하루만은 맘 편히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이디어는 그럴싸했는데 관객과 무대에 설 팀이 필요했다. 전국 교대 댄스동아리 페이스북·SNS·유튜브 채널을 수소문해 일일이 섭외하고, 학생회에 양해를 구해가며 대학교에 벽보를 붙이고, 한동안 연락이 끊긴 현직교사 동아리 선배들에게 공연 섭외와 초청 전화를 돌렸다. 춤에 대한 열정을 상기시키고 용기를 북돋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 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감사하게도 기대 이상의 관객과 공연팀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ASP 1을 치렀다. 시작이 결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그렇게 쌓은 인연은 다음 해 ASP 2에도 이어졌고, 가능성에 힘입어 2019년엔 입장객 160명 이상, 전국 각지의 15개 교사 댄스팀이 참가하는 성대한 파티를 개최했다.

스트리트 댄스 크루에서 교사 크리에이터 집단으로

그 뒤 여기저기 초청공연과 게스트 무대를 서게 됐고 무대를 보고 뜻을 같이하는 서울·경기 지역의 선생님들이 속속 팀에 합류했다. 춤추는 것은 기본이고 춤을 공통분모로 영상·음악·디제잉·패션·공연기획 등 다양한 재능과 개성을 가진 새로운 분야의 멤버를 영입하면서 스트리트 댄스 크루인 동시에 다양한 창작활동과 작품활동을 하는 교사 크리에이터 집단으로 변모했다. 직접 노래를 만들고, 안무를 창작하고, 심지어 촬영과 영상 편집까지 한다. K-POP 커버댄스나 방송 안무처럼 기존의 안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스트리트 댄스의 자유분방함을 그대로 살려 새롭게 창작하거나 우리만의 색을 입힌다. 실력이 다소 부족할지는 몰라도 우리만의 동작을 만들고 우리가 추고 싶은 춤을 추



1. SOUL(소울) 장르의 스트리트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
2. 프리스타일 힙합 장르의 스트리트 댄스를 추고 있는 모습.
3. 애프터스쿨파티(ASP3) 공연 당시 단체 군무 모습.
4. ASP3 포스터.

유튜브채널
〈3호선 교대역〉



인스타그램
〈3호선 교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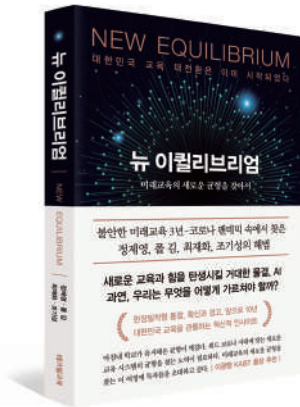
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스트리트 댄스라는 장르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스트리트 댄스를 춘다.

춤, 행복한 교직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돼

한편 교사의 모든 발걸음은 학교로 향한다는 말처럼 춤은 교직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선생님이 지내다 보면 필요 이상의 의무감과 사명감에 종종 짓눌릴 때가 있다. 스트리트 댄스는 순수한 즐거움으로 자신을 채운다. 교단 앞에서는 직업적 자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기에 나 자신의 결을 전부 다 드러낼 수 없지만 춤출 때만큼은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발산한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얹매이지 않는 해방감을 느낀다. 그래서 춤은 교직 생활에 활력소가 되고 신명 나는 교실을 만든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춤을 추는 사실을 아냐고? 알리지 않고 조용히 활동하는 멤버도 있고 굳이 숨기지 않는 멤버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2020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과 달리 선생님이 만든 캠페인송 WASH 댄스 챌린지의 안무에 참여해 춤의 교육적 가치와 공익적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하다. 코로나19가 있기 전, 매주 토요일 아침부터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정기연습도 매년 개최하던 ASP 파티도 취소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춤을 사랑하고 춤을 춘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교사와 교대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댄스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앞으로 공익적 목적의 캠페인 안무에도 참여하고파

교직 사회는 좁은 데 반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나 놀이거리가 적다.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가끔은 마음껏 뛰놀라고 하면서도 정작 선생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잘 놀 줄 아는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더 잘 가르치고, 교직 생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사랑하는 춤으로 좋은 선순환을 일으키고 싶다. 멤버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영역에서 본인만의 개성이 묻어 있는 창작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단체로서는 공익적인 목적의 다양한 캠페인이나 이벤트 안무에 참여해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고 싶다. 나아가 우리의 행보가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에게 또 다른 영감과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T



미래교육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서

뉴 이퀄리브리엄

저자. 정제영, 폴 김, 최재화, 조기성

출판사. 테크빌교육

코로나19로 모든 게 달라졌다. 국내 산업, 국제 교류를 아우르는 전 분야에 혼란과 변화가 찾아왔다. 그 혼란과 불안이 특히 막대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교육이다. 가시화된 숫자나 지표에 담기는 것보다 담기지 않는 게 더 많다. 학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2년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앞으로 1년 더, 예측 가능한 현실이다.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학습 부진과 결혼에 대한 불안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초학력, 교육의 양극화, 디지털 환경의 소외 같은 문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편 AI,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같은 술한 용어들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혼란이 극심할수록 더욱 사수해야 할 창과 방패는 무엇일까. “위기는 기회이고 현재의 혼란은 곧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지렛대”라는 발전적 지향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성장시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교육의 중심 축은 무엇인가?

해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교육 분야 대표 자성 4인이 자신의 연구·개발 성취를 바탕으로 혜안을 내놓았다. 폴 김(‘AI 시대, 미래인재 역량과 교사의 역할’, ‘AI 교육 프로그램’ 부문), 최재화(‘디지털 지식과 평가’ 부문), 조기성(‘학교 현장의 실제’ 부문), 그리고 정제영(‘인공지능과 교육정책’ 부문)이 그들이다.

저자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 변화를 ‘뉴 이퀄리브리엄(New Equilibrium)’이라 명명하고, 학교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의미와 미래교육에 대한 진보적 통찰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4차혁명 시대에 맞춰 교육에, 그리고 학교에 어떤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리고 기술 도입에도 흔들리면 안 되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중심 역할이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 책에서 위드 코로나 미래교육 해법을 만나 보자. 저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가치상실의 시대, 교사에게 말을 거는 44명의 철학자 교사의 서재

저자. 이한진
출판사. 테크빌교육

철학하는 교사 이한진 선생님이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거침없이 종횡하며 율곡·아렌트·키르케고르·니체·박지원·푸코·바우만·마이클 샌델 등 44명의 철학자와 그들의 철학명저 44권을 선별해 소개하고, 이들의 주요 철학 개념을 교사의 생생한 일상에 대입시키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각기 11명의 철학자를 소개한 네 가지 주제는 ‘진정한 배움, 바람직한 가르침, 행복한 교육, 정의로운 교육’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급변하는 사회, 흔들리는 교실, 비대해지는 매너리즘으로부터 교실을 지키려면 교사에게도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독자에게 철학의 필요를 호소했다. 이어지는 다양한 철학 개념에 대한 저자의 친절한 설명과 비판적 사유를 통해 독자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상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낯설게 재인식하는 귀중한 자기 객관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책 한 권을 독서하면 44권 철학서의 다이제스트 요약본을 탐독하는 듯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성적과 자신감을 모두 잡는 공책정리 방법 한 번에 쓱쓱! 허쌤의 공부가 좋아지는 공책필기

저자. 허승환
그림. 허예은
출판사. 테크빌교육

색색의 펜으로 예쁘게 정리하는 공책필기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려는 지식을 단번에 콕 붙잡아 머릿속에 딱! 안착시키는 확실한 공책필기 기술을 허승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친히 전수한다.

마인드맵부터 다양한 싱킹맵 그리는 법, 빈 종이로 코넬노트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복습하는 미래의 나를 위해 퀴즈 만들어 두는 법, 실수가 실력이 되는 오답노트 작성 비법, 성적이 안 오를 수 없는 333 공부법 등 공부 더 잘하고 싶은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고 효과 분명한 방법을 쏙 다 모아놴다.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공책 정리 수준을 6단계로 진단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이 책에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답, 내 공부 목표 진단하는 법, 수업 엄청 즐겁게 듣는 기술, 공부가 좋아지는 공부 퀴즈까지 어린이 눈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가이드하는 재미있는 자기주도학습법이 담겨 있다.

공부하라고 말하지 말고 공책필기 방법을 알려 주자. 공책 정리 수준이 달라지면 성적과 자신감 모두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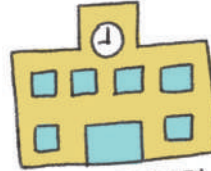
학교에 간



서니쌤

그림. 정은선
서울도성초등학교 선생님

저는 과대·과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2,000명



학급당 학생 수
30~40명

1학기 때부터 앞번호와 뒷번호로
반반 나누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6-1



앞 / 뒷번호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
마치 두 개의 반을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세상 활발한 학생이 많아
수업 시간 참여도가 높은 앞번호

조용하고 차분한 여학생이
많고 예술가 같은 뒷번호



전면등교

그리고 11월, 전체등교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앞번호랑 만나면
더 시끄러울 것 같아요!



드디어 11월 22일, 33명 모두가 만났습니다.

...



짜장 교실풍경에 모두가 긴장한 채로

1교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3월처럼 학급규칙과 1인1역을 정하며

하루를 보내니 조금은 한 반이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어 걱정도 되지만
졸업 전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SNS에서 '서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정은선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웹툰
'학교에 간 서니쌤'과 교실 기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 간 서니쌤



언제나 선생님과 쌤동네는 함께였어요!



교사 지식 공유 플랫폼, 쌤동네

2021년 동안 쌤동네와 선생님이
“같이 가치” 한 순간

41,375
시간

* 21년 쌤모임
이용자의 수강 시간 합

20,846
명

* 21년 콘텐츠 &
쌤모임 수강자 합

선생님을 성장시키는 쌤동네 서비스

콘텐츠



약 11,000개의 교사 콘텐츠
쌤동네 독점 시그니처 콘텐츠

쌤모임



교사 성장을 위한 모임 상시 개최 중
자율연수 수료증 & 영수증 제공

쌤찾자



200명의 교사 강사를 만나는 순간
전학공/학교 맞춤 강의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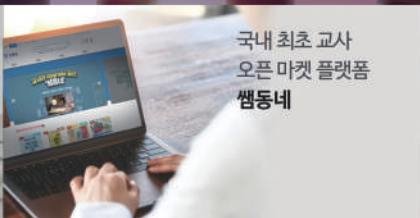
교사 · 학생 · 학부모를 연결하는 에듀테크 기업

20th

ANNIVERSARY

인공지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구현하는 **선생님**,
여행을 떠나는 차 안에서 수업에 참여해 친구들과 토론하는 **아이**,
입시 보다는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부모**.
앞으로 테크빌교육이 에듀테크로 만들어 갈 더 나은 내일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교사지원 플랫폼 티처빌	 국내 최초 교사 오픈 마켓 플랫폼 쌤동네	 K-12 최적화 교육전문쇼핑몰 티처몰
 쉽고 재미있는 AI 융합교육 MakeLab	 영유아 부모대상 양육통합플랫폼 부모공감	 AI, 메타버스 기반 기술과 교육의 결합 에듀테크연구소

👤 티처빌연수원

👤 쌤동네

👤 클래스메이커

👤 티처몰

👤 키즈에듀빌

👤 즐거운학교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